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에 대한 탐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조혜영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에 대한 탐구

권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조혜영

# 인 준 서

조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북한 사회체제에서 이미 습득한 교육관이 남한 사회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접근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준거(Spradley, 1979)를 기초로 하여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사례 연구방법 중에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방법을 사용하였고,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병행하였으며, 교육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참여관찰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면담을 위하여 2012년 5월 12일부터 2012년 8월 18일까지 15주 동안 각 3-4회 면담으로 구성하여 총 28회의 개인면담과 총 4회의 집단면담으로 진행하

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위하여 2012년 4월 5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17주 동안 주 1회, 총 17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그의 자녀가 교육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교육적 경험의 행동과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관찰하였다. 면담과 관찰은 연구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과 현장노트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e-mail과 전화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의미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참여관찰의 필드노트와 심층면담의 전사본은 총 249쪽이며, 녹음시간은 총 1,440분이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위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방법 중에서 방법론적 삼각검증법과 같은 질문에 대해 언어적 자료 외에 시각적 자료를 추가하는 자료의 삼각검증법을 사용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이 남한 유아와 북한 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때문에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유치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한의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환경적인 조성이 되어 있지 못한 반면, 남한의 유치원은 유아 스스로 다양한 매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습득하게 되어 유아의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교사-부모는 상하관계이며, 이는 곧 소통 단절로 이어지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유아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남한사회에서의 부모-교사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로 하여금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동반자 의

식을 갖게 되는 긍정적 경험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낮은 출신 성분의 자녀들은 꿈과 희망이 없는 반면, 남한에서는 누구나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과 북한의 다른 교육방식으로 인한 남한 교육의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교육방식인 체벌, 반복학습 등의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남한은 유아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교사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주체가 교사중심에서 유아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만큼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에게 유아기 자녀교육에서의 역할 변화는 교육에 대해 새로운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안겨 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한은 탐색위주의 활동을 중요시 하는 반면, 북한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수방법을 찾길 원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고립된 생활로 인해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정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과 북한의 다른 소통방식과 억양 때문에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보다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길 원하였고,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길 원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언어교육, 다양

한 정보제공,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술능력 습득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를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해 주길 원하였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8
3. 연구자 .....	9
II. 이론적 배경 .....	13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현황 .....	13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13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	14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실태 .....	15
2. 북한의 취학 전 어린이보육교양 교육내용 .....	17
1) 북한의 탁아소 교육내용 .....	17
2)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 .....	21
3. 북한이탈주민과 유아를 위한 교육적·정책적 지원제도 .....	27
1) 지원제도의 필요성 .....	27
2) 지원제도의 종류 .....	29
4. 선행연구 .....	30
III. 연구방법 .....	35
1. 연구 참여자 .....	35
1) 연구 참여자 선정 .....	35

2. 연구방법 .....	41
1) 참여관찰 .....	41
2) 심층면담 .....	42
3. 연구절차 .....	43
1) 예비연구 .....	43
2) 본 연구 .....	44
4. 자료 분석 .....	47
IV. 결과 및 해석 .....	48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 .....	48
1) 교육기회의 땅, 남한사회: 누구에게나 평등한 유아교육 .....	48
2) 자유교육의 땅, 남한사회: 유아중심의 교육 .....	53
3) 신뢰 가득한 땅, 남한사회: 부모와 교사 간 교육 동반자 의식 .....	58
4) 행복한 삶의 땅, 남한사회: 유아의 꿈과 희망 꽃 피우기 .....	61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어려움 .....	64
1) 상이한 교수방법: “여기는 북한처럼 공부를 안 가르쳐 줘요” .....	65
2) 상이한 교육주체: “북조선에서 애 교육은 교양원이 다 해줬지” .....	70
3) 상이한 소통문화: “남한 말은 도통 모르겠어” .....	75
4) 상이한 학습내용: “여기서 살려면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요” .....	79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요구사항 .....	84
1) 북한이탈주민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	85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	87
V. 논의 및 결론 .....	91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 .....	91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어려움 .....	94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요구사항 .....	9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12.6월 입국자기준) .....	14
<표 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 입국인원 현황(~'12.1월 입국자기준) .....	15
<표 3> 북한의 탁아소 교육제도 .....	18
<표 4> 일탁아소의 일과표(생후 18개월-3세까지의 유아 아동반 대상) .....	19
<표 5> 주탁아소의 일과표 .....	20
<표 6> 1946-1990년 북한의 유치원 및 아동 수 .....	22
<표 7> 북한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제 .....	23
<표 8> 유치원 2년간의 교육과정 편제와 비율 .....	24
<표 9> 유치원의 낮은반(만 4세)의 교육과정 편제와 비율 .....	25
<표 10> 북한 유치원 유아 활동 시간표 .....	25
<표 11> 일유치원의 일과표 .....	26
<표 12> 연구 참여자 선정근거 .....	36
<표 13>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 어머니 .....	37
<표 14> 예비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	43
<표 15> 자료 수집 및 방법 .....	45
<표 16> 면담 일시 .....	46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위기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8).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대부분 성인이 탈북 했다면, 지금은 북한에서의 생존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족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최혜신, 2010),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탈북 하는 등의 개인에 따라 탈북의 동기가 다양화 되고 있다(임태오, 2012).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 하듯, 통일부(2012)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10대 미만의 0세에서 9세 유아는 2012년 1월 입국시점 기준으로 9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약 4%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특히, 유아기는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가족 역할 관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인생초기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유아의 일생 동안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장휘숙, 1995).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절한 환경적 상호작용과 교육 경험은 전 생애 인간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Committee on Earth Pedagogy, 2000), 이들의 초기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2006) 많은 학자들이 유아교육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Belfield, Nores, Barnett, & Schweinhart, 2006; Cunha, Heckman, Lochner, & Masterow, 2005; Heckman, Moon, Pinto, Savelyev, & Yavitz, 2010).

또한, 유아들이 첫 번째로 사회에 내딛는 곳이 유아교육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들이 낯선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 적응 한다는 것은 대인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배움을 습득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이 속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 하나는 이들의 부모 영향이 크다(박미경, 엄정애, 2007).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남한사회의 언어, 문화, 교육방법 등의 이질성으로 인한 어려움(서종남, 2010)과 스스로 남한사람과는 다른 이방인으로서 치부하기 때문에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는 등 부적응 행동이 원인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전국적으로 분리 정착하고, 주변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공교육 속에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있지만(진상우, 2010), 강재희(2008), 김석향(2003), 그리고 전우택(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언어적 이질성은 사회 적응 초기단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유아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진상우, 2010). 따라서,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습득 및 언어 소통,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는 처음 탈북자들이 정착하는데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임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적응은 이주 시기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이순형 외, 2008).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들은 탈북에서 입국까지 긴 시간을 중국, 미얀마 등 제3국을 떠돌면서(이순형 외, 2008) 학습 부진의 학령 지체현상(최혜신, 2010)과 육체적 고통,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남한과 북한과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은 국가정체성의 문

제와 연결(이순형 외, 2008)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심화 될 수 있는데 이때 긴장,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황정숙, 2009).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경험하는 어려움은 유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강재희, 2010a), 일반 가족에 비하여 더 많은 문제와 정신건강의 취약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최혜신, 2010)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역할과 태도(정진웅, 2005),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 좋은 교육적 경험은 이들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가적 사회문화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남·북한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 없지만, 각 사회에서 지향하는 교육방향은 상이하다. 남한 사회에서의 교육관은 자유 민주적 접근으로써 균등한 기회, 평등을 주장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을 통해 미래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북한 사회의 교육관은 선천적인 능력보다는 후천적인 교육 및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양원의 영향에 의해 발전되고 형성된다고 주장하며(김동규, 1990), 혁명적 구성원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북한사회의 유아교육은 공산주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부합되는 사상을 심어준다. 실제로 남한사회의 보육시설 이용은 보육시설 수의 양적 팽창에 이어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든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 유아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지만, 북한사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정으로 인해 보육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보육이 주체사상의 교육, 혁명적 의식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대상을 유아 집단

으로 하는 교육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최민수, 2002). 성영혜, 김수정(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사회의 방과 전·후 보육은 교사가 숙제와 과외활동 지도 등의 학습위주 교육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유아 개인의 흥미와 욕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유아교육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이질성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접근방식에 있어서 이중적 가치관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상반된 교육관은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학교 부적응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범죄의 건수가 남한사회의 평균 범죄 발생률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정준오, 고성호,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Hausser-Cram, Durand, & Warfield, 2007; OECD, 2006; Van Tuijl & Leseman, 2007)에 의하면 어린 시기에 적절한 개입 결여는 연령이 높아졌을 때 폭력, 및 도벽(임상수, 정순미, 서승희, 2008) 등 사회부적응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아교육기관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유아가 남한사회에 새롭게 적응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박병규, 2009)되므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모든 물리적, 인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적요인, 사회적 지지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영역을 분석하여 남한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강유경, 2011)가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남한 사회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 초기단계에 중점을 두어 적응 과정을 탐구한 연구(강해성, 2011)가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제에 대한 연구(곽정래, 2010)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인식유형을 알아보고 사회복지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배지철, 2010)가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적 지원과 개선에 관한 연구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재검토 및 정부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무엇이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지원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김성구, 2008; 박성열, 2007)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에 관한 연구(이양호, 2009),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현황, 적응 실태 등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정병철, 2008)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적 측면 및 정책적 사안으로 접근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비중을 두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로는 남한사회 학교생활적응(우영호, 2008)과 관련하여 이들의 처우를 살펴본 연구(고강섭, 2011)와 이들의 사회적 특성을 나누어 살펴본 연구(박윤숙, 2006), 그리고 이들이 학교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연구(김애진, 2011)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유아보다는 성인과 청소년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유아와 관련된 연구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김미정, 정계숙, 2007; 김예영, 2012; 문은주, 2012; 박현정, 김

윤수, 박호란, 2011; 홍주은, 2003)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생활과 적응에 대한 연구(강재희 2008, 2010a, 2011; 김영미, 이재연, 정선아, 2003; 이부미, 2003, 2004), 그리고 북한의 보육과 교육제도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강재희, 2010b; 성영혜 외, 2001; 양옥승, 2012)가 있었지만,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가 겪는 교육적 경험을 간과한 채 이루어졌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자녀가 유아교육기관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하여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했던 연구(김성숙, 2012)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이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고찰하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어떻게 적응하며, 그 변화 과정과 생활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김희태, 권영덕, 2007; 박미경 외; 2007; 윤갑정, 고은경, 2006)가 있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적응과 변화 과정을 살펴본 연구의 한계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성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이들의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유아가 단순히 유아교육기관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둔 연구였다. 따라서, 한 민족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육과 사회적 맥락에서 문화를 고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유아를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포함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남한사회의 고유한 환경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족의 이질성은 행정제도 등 제도적 측면보다는 교육과 문화 현상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다(통일연수원, 1995).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이미 신념, 가치 등 공산주의 사회의 이념을 사회화과정을 통해 습

득했기 때문에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를 받아들이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김미정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은 북한주민이 남한의 문화와 사회체제 속에서 문화적 과도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매우 독특한 이주 형태라 정의한 바 있다. 이는 행동과 패턴을 통하여 개인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개인의 가치관은 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북한의 다른 체제와 가치관에 따른 문화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남한 사회 적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는 장애물로 이들의 자녀에게 전이된다.

이는 북한의 혁명사상의 주입식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 하길 희망하며(노희숙, 2012), 자신의 어린 자녀가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때 유아교육기관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매개물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이질화된 문화와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자녀에게 전이된다. 그렇게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이때,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교육적 상호작용 현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부정적 경험이 그들의 자녀에게 전이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한사회 유아교육기관에 의존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은 자신의 자녀가 남한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곳으로써 이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와의 교육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내는 유아교육기관과의 소통이 어떠한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은 어떠하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접근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를 갖는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이 어떠하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최종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인가?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3. 연구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참여자에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 스스로 자료수집의 연구도구이며(이종규, 2007; James, 1997),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대화 과정(조용환, 2011)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력 및 경험에 따라 연구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Mason,

2010)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글로벌 사회 도래로 인해 증가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문제는 연구자로 하여금 소수자 인권과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박천웅(2010)은 소수자란 “성, 연령, 인종 및 민족, 종교,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출신 지역 등을 근거로 사회 내 지배적 기준과 가치의 상이한 입장에 있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한바 있다.

대학교 재학 당시 보육과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을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의 문제점 도출로 부터 시작하여 다문화 관련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참석하였다. 다문화는 나와는 다른 이방인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및 각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로, 이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국가적 체제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이들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대학생인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시기가 나의 대학시절이었다. 나의 대학시절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탁상공론에 불과하였으며, 어린 내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유아기 자녀와 초등학교 자녀를 가르치고, 집안을 청소해 주는 것에 불과 하였다. 먼 훗날 내가 성인이 되고, 학문의 길로 접어들면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게 된 시기가 나의 대학시절이다.

2011년 1월 우연히 참석한 한국문화인류학회 월례회 발표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소수자로 보는 관점은 단지 그들이 남한과는 다른 말투와 출생지 등 외형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판단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획일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현실을 보면서, 북한이탈주민 특성 및 그들만이 독특한 경험과 상황을 고려한 총체적 관점에서 맥락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써 북한이탈주민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 등 남한 사회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말라 하던 나에게 이 모임은 다문화 가정 중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울, 경기도권 구청에 모두 연락한 끝에 서울 소재지 A구청과 연락이 닿아 2011년 2월부터 현재(2012년 11월)까지 서울시 A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유아 2명의 학습지도를 맡게 되었다. 학습지도 당시, 북한이탈주민과의 신뢰감(rapport)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북한이탈주민 자신들 스스로를 이방인 취급하여 높아진 환경적 장벽은 연구자로 하여금 이들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정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자녀와 놀이를 통한 학습을 지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 이들이 남한에 정착한 목적은 북한의 사회 붕괴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더 이상 자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만난 북한이탈주민 유아 2명의 부모님은 북한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 자녀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들과 이들을 둘러싼 교육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고충을 알게 되었다. ‘다른 환경’과 ‘이방인’은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에게 낯설음에 대한 대상 단어가 아니었다. 그 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모습 속에서 남한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수동적 주체로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을 발견하

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연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과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동정심의 감정이 이입되는 등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들을 바라보았고,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연구자인 나는 이들에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면담의 준거를 정한 후, 이들과 면담을 시작 하였다. 예비면담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삶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예비연구 참여자인 두 가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에 알맞은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과 1년 넘게 만나면서 인지적 보수성으로 인하여 이미 북한의 교육방식으로 도식화 되어 왜곡되어진 이들의 교육관이 남한에서 자신들의 유아기 자녀를 교육기관에 맡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북한의 유아교육기관 경험과 남한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남한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수동적인 삶을 탈피하여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로서 그들이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고찰한다는 것은 향후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등이 좀 더 체계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현황

####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은 시대적 배경과 탈북자들의 상황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해방 후 한국전쟁 때까지는 고향을 떠난 '실향민'으로 불리어졌으나, 남북이 분단된 이후 1990년대 이전에는 냉전체제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 체제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 남한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정치적 성격을 띤 귀순자(歸順者), 귀순용사(歸順勇士)로 불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조선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북조선을 떠나 북쪽의 국경 지역(두만강 유역, 압록강 유역, 그리고 백두산 유역)을 통해 탈북하여(김문수, 2004), 일정 기간 동안 제3국(중국을 비롯한 타이, 미얀마, 라오스 등)에 불법 체류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는 북한의 인구 수가 급증하였다. 통일부는 2004년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탈북자라는 용어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임상수 외, 2008). 하지만, 남한 일각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의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에는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탈북자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새터민으로 불렀고(박병규, 2009), 탈북한 사람들의 상황이나 성격의 다양화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자와 같은 용어로 현재까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의하여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북한을 탈출하여 어디든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 규정”하고 있다.

##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탈북이 아닌 식량난과 더불어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탈북하는 수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순형 외, 2008; 임태오, 2012).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 6월까지 총 23,846명이 국내에 입국하였다(통일부, 2012).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12.6월 입국자기준)

(단위 : 명)

연도 구분	~'98	'01	'2	'3	'4	'5	'6	'7	'8	'9	'10	'11	'12(잠정)	합계
	남	831	555	509	473	626	424	514	571	606	662	589	798	215
여	116	481	632	809	1,272	958	1,512	1,980	2,195	2,252	1,812	1,908	536	16,463
합계	947	1,046	1,141	1,282	1,898	1,382	2,026	2,551	2,801	2,914	2,401	2,706	751	23,846

출처 :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중 유아 수의 증가는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탈북 동기 대상은 성인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 북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생존문제가 대두되면서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1월 기준으로 0-9세 탈북 유아는 963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를 차지한다(통일부, 2012).

<표 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 입국인원 현황(~12.1월 입국자기준)

구분 \ 연도	연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누계(명)	933	2,724	6,338	7,188	3,746	1,160	1,64	23,183
비율(%)	4	12	27	31	16	5	5	100

출처 :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2의 하나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사회적응교육을 내실화 하여 초기적응을 돕고, 거주지 중심의 정착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과 2011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새로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에게 균등한 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통일부, 2012).

###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실태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한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제공하는 정착금, 주택제공,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남한사회에 막상 정착하려고 하면 남한사회에 대한 이상과 동경과는 동 떨어진 현실만 남게 된다. 이처럼, 처음 탈북하여 남한에 도착했을 때는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보여주며, 누구나 중산층 이상의 삶이 가능할 것 같이 해 놓고 정착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2006).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냉담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순형 외, 2008).

### (1) 가족 역할의 변화

남한은 북한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로써 노동이 갖는 비중은 실존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한 만큼의 대우와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북한에서 가졌던 학력과 경력에 비해 하향된 직업을 갖게 된다(윤인진, 1999). 이로 인해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가족의 역할이 변화 되었다. 북한은 가부장적이고 유교적 전통이 강한 반면, 남한은 민주주의의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성별에 의한 구별 없이 누구나 사회로 진출하여 경제 활동을 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역할과 의식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일 자리를 구하기 힘들며, 일 자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패배감은 가족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부부 간의 갈등이 초래되어 사회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 (2)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삶

북한이탈주민은 돈에 대한 양가감정을 갖게 되는데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돈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들을 경시하면서도 남한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전우택, 2000).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다. 탈북 할 당시 브로커에게 일정금액을 제공하거나, 탈북 당시 브로커에게 지불 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남한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남한에서 받게 되는 정착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정착금으로 생활을 한다고 해도 현재 물가대비 장사를 할 수 있는 큰 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정부가 알게 되면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등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 2. 북한의 취학 전 어린이 보육교양 제도 교육내용

북한에서의 유아는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지칭하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에는 어린 영아들이 사상교육과 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탁아소, 국가가 정해 놓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유치원 외에 부모가 없는 어린이 혹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관인 육아원과 애육원이 있다. 취학 전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후 1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는 보육교사인 보육원이 탁아소에서 보육하며, 만 4세부터 만 6세의 유아는 유치원교사인 교양원이 유치원에서 교육한다(최민수, 2002).

### 1) 북한의 탁아소 교육내용

1976년 4월 29일에 공포된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북한의 탁아정책의 시작이다. 탁아소의 일과는 사회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준법 사상을 키우는 중요한 조직이다. 북한에서 이야기 하는 보육교양이라 함은 보육과 교양의 합성어로서 국가 부담의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취학전 교육에 대한 배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보육제도를 기본이념과 목적, 서비스 유형과 내용, 교원양성과정, 시설현황 및 실태로 나누어 고찰하면 표 3과 같다(성영혜 외, 2011).

<표 3> 북한의 탁아소 교육제도

항목	북한
기본이념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 육성</li> <li>▪ 김일성 주체사상 지도</li> <li>▪ 공산주의 혁명 후대 양성</li> <li>▪ 여성을 그들의 자녀양육과 가정에서 해방시켜 노동시장에 동원</li> </ul>
서비스 유형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만 3세 유아까지의 유아 전원</li> <li>▪ 내용 : 신체, 인지발달과 아울러 주체사상교육 및 혁명적, 전투적 정치의식 배양</li> </ul>
교원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6개월 양성과정</li> <li>▪ 통신교육</li> <li>▪ 이동강습소(교사 재교육)</li> </ul>
시설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정으로 보육원 수 급증</li> </ul>

출처: 성영혜 외(2011)

북한이 취학 전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만큼 영아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지적으로 지혜로우며, 육체적으로 튼튼한 어린이로 키워야 사회주의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갈 수 있다(김일성, 1978: 성영혜 외, 2011에서 재인용).” 또한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여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취학 전 교육을 사회에서 맡아준다는 의미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 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하게 되므로 결국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보육교양은 공산주의적 품성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핵심적 교육방식은 집단교육이며, 영아 초기부터 집단생활을 통해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르는 것이다. 보육원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도록 영아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6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들의 연령, 개인의 특수성을 유념하여 유희시간과 수면시간의 정상적인 배당, 둘째, 어린이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놀 수 있는 유쾌한 환경 마련, 셋째, 규칙적, 독립적 습관 배양, 넷째, 어린이들의 언어발달 도움, 다섯째, 어린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서 함양, 여섯째, 집단주의, 애국주의 고취 (김형찬, 1988)”라 할 수 있다.

탁아소의 운영형태는 일탁아소, 주탁아소, 월탁아소로 구분이 된다. 일탁아소는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데려가는 형태라면, 주탁아소는 월요일에 맡기고, 토요일에 데려가는 형태, 월탁아소는 1개월 단위로 자녀를 탁아소에 맡겨두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각각의 운영형태에 따른 일과표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표 4와 표5는 일탁아소와 주탁아소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표 4> 일탁아소의 일과표(생후 18개월-3세까지의 유아 아동반 대상)

구분	시간	활동내용
1	7 : 00 - 8 : 00	아동수용(집에서 아침식사)
2	8 : 00 - 8 : 30	유희 및 교수
3	8 : 30 - 9 : 00	손을 씻고 식사하기
4	9 : 00 - 9 : 30	산책준비
5	9 : 30 - 11 : 00	산책하기
6	11 : 00 - 11 : 30	손을 씻기(화장실)
7	11 : 30 - 12 : 30	점심식사하기
8	12 : 30 - 13 : 00	낮잠준비
9	13 : 00 - 15 : 00	낮잠자기
10	15 : 00 - 15 : 30	손을 씻기(화장실)
11	15 : 30 - 16 : 30	식사하기
12	16 : 30 - 19 : 00	산책, 유희 및 교수
13	19 : 00 - 19 : 30	귀가하기

출처: 김형찬(1988), 최민수(2002)에서 재인용

<표 5> 주탁아소의 일과표

순서	구분	시간	활동내용
1	잠깨기	6 : 00 - 6 : 20	잠자기 정돈
2	세수	6 : 20 - 7 : 00	대·소변보기 세수 체온재기
3	아침밥먹기	7 : 00 - 8 : 00	2교대로 30분씩
4	자유시간	8 : 00 - 8 : 30	-
5	놀이 및 수업	8 : 30 - 9 : 00	원수님 따라 배우기 노래공부
6	손씻기, 새참	9 : 00 - 9 : 30	새참 : 사탕과 과자
7	산보	9 : 30 - 11 : 30	산보준비시간 포함
8	손씻기	11 : 30 - 12 : 00	점심먹기 준비
9	점심밥먹기	12 : 00 - 13 : 00	2교대로 30분씩
10	낮잠준비	13 : 00 - 13 : 30	손과 발을 씻고 대소변 가리기
11	낮잠자기	13 : 30 - 15 : 30	창문을 열고 깨움
12	손씻기	15 : 30 - 16 : 00	대소변 가리기
13	새참	16 : 00 - 16 : 30	새참 : 우유
14	놀이수업	16 : 30 - 17 : 30	기재를 이용하여 밖에서 진행
15	손씻기	17 : 30 - 18 : 00	대소변 가리기
16	저녁밥먹기	18 : 00 - 19 : 00	2교대로 30분씩
17	자유시간	19 : 00 - 19 : 30	바깥바람 쏘이기
18	목욕	19 : 30 - 20 : 00	매일 4-5명씩 목욕
19	새참	20 : 00 - 20 : 30	새참 : 사탕과 과자
20	밤잠준비	20 : 30 - 21 : 00	손씻고 대소변 보기
21	밤잠자기	21 : 00 - 6 : 00	밤 11-12시에 오줌가리기

출처: 서동익(1987). 최민수(2002)에서 재인용

탁아소에서 유아에게 규칙적인 습관과 독립적인 습관, 원수님에 관한 공부를 훈련시키는 것은 이타심보다는 독립정신을 장려하고, 조기교육의 주입식 교육을 통해 공산주의 교육자의 덕목을 갖추기 위함이다.

## 2)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

북한의 유치원은 “아동으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정규 인민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며, 또한, 사회주의 앞날의 일꾼이 되도록 그에 알맞은 역할을 발달 시키는데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조선총독부, 1927: 김형찬, 1988에서 재인용).”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사회주의 사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유아들이 인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특히 그들의 수령인 김일성을 사랑하도록 강조하여 이를 교육과정으로 포함하여 가르친다.

남과 북이 휴전 이후, 북한에서는 어떤 기관이 설립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각 행정구역의 인민위원회와 산업기관 설립 유치원을 의미하고, 정권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은 농업협동조합이 설립한 것을 의미하는데 정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서 북한의 공립유치원을 들 수 있는데, 공립유치원의 시작은 인민학교의 일부로 설립되어 인민학교 내에서 부속 유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인민학교 원장이 부속 유치원의 원장을 겸임한다. 반면,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 할 때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하지만 북한의 유치원은 대체로 교실, 식당, 교재실, 오락실, 목욕탕, 이발소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유희활동을 위한 실내시설 외에도 실외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45미터×15미터 크기에 이곳에는 그네, 미끄럼틀, 목마, 시소, 연못, 모래터 등이 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유치원의 발전은 유치원 시설 확충과 수용시설 증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46년부터 유치원 수가 증가하였고, 1960년 4천개의 유치원이 갑자기 설립되면서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도 마찬가지로 1946년부터 1987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1990년대 이르러 1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북한의 유아수가 증가<sup>1)</sup>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모든 유아를

수용하기에는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의 미흡으로 인해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1946-1990년 북한의 유치원 및 아동 수

연도	유치원 수(개)	원아수용인원(명)	자료의 출처
1946	64	3,918	①
1949	116	8,66	①
1953	19	1,48	①
1956	173	12,15	①
1957	238	15,57	①
1960	4,470	295,485	①
1962	5,121	476,41	①
1963	5,667	578,859	①
1966	-	790,000	②
1970	6,800	1,120,000	③
1972	-	1,170,000	④
1987	19,262	-	⑤
1990	약 24,000	약 1,400,000	⑥

출처: ① 김형찬(1988). 북한 교육발달사. 서울: 한백사.

② 朴容憲(1982). 소련과 北韓의 就學前教育. 유네스코한국교육위원회 (편), 세계의 취학전 교육 II. (pp. 366). 서울: 배영사, 최민수(2002)에서 재인용

③ 阿部洋(1983).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世界 幼兒教育. 東京: 日本 197쪽. 298쪽, 최민수(2002)에서 재인용

④ 北韓研究所(1983).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최민수(2002)에서 재인용

⑤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1988). 朝鮮概觀(翻譯). 國土統一院, 최민수(2002)에서 재인용

⑥ 민족통일중앙협의회(1990). 방문자를 위한 북한편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최민수(2002)에서 재인용

유치원 교육과정은 표 7과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내용이 16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적인 학습은 낮

1) 1993년 및 2008년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일제조사(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1993~2008년 센서스 사이 연도의 과거 북한인구와 2009~2055년 장래 북한인구를 추계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1993년 기준으로 북한의 5-9세 사이의 유아의 수는 1,895,456명이다.

은반(만 4세) 보다는 높은반(만 5세)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낮은반은 ‘놀이’를 통하여 조선어, 셈세기, 그리기와 만들기 등을 학습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조선어, 셈세기를 비롯한 학습을 위한 배움의 시간이 상당히 높게 구성되어 있다.

<표 7> 북한의 유치원 교과과정 편제

과목	총 시수	낮은반(만 4세)		높은반(만 5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80	20	20	20	2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선생님 어린시절	80	20	20	20	20
우리말(국어)	120			60	60
셈세기(산수)	80			40	40
노래와 춤	280	80	80	60	60
그리기와 만들기(미술)	80			40	40
체육	160	40	40	40	40
놀이(유희)	240	80	80	40	40
관찰	80			40	40
<b>합계</b>	<b>1,200</b>	<b>240</b>	<b>240</b>	<b>360</b>	<b>360</b>

출처: 조주연, 한만길, 황규호(1995), 최민수(2002)에서 재인용

북한의 유치원 전 교육과정은 유아를 “김일성과 당에 충성하며 집단사회에 유능한 공산주의자로 형성(김형찬, 1988)” 하여 전체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이는 보육원에서 받은 사상 교육보다 더 심화되고 조직적이며, 규칙적인 교육을 유치원에서 하며 개별적 활동보다는 집단위주의 활동으로 접근한다. 탁아소는 양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유치원은 양육과 교양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훈련과 조직생활에 응화 될 수 있는 규율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과거 북한의 유치원 수업과정은 크게 운동(運動)유희, 창조(創造)유희, 교수(教授)유희로 구분(이수형, 1958: 김형찬, 1988에서 재인용)하여 설명하였지만

최근에는 정치사상교양, 지적교육, 정서교육, 체육교육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최민수, 2002). 이러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정치사상교양, 지적교육, 정서교육, 체육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정서교육(31%)이지만, 북한 유치원에서의 놀이는 선택활동이 아닌 주로 우리말, 셈세기 등 기본적인 개념을 획일적이며, 주입식으로 교수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적교육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유치원 2년간의 교육과정 편제와 비율

영역구분	교과목명	시수	비율		
			교과목별	교육영역별	
정치사상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선생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80	6.5%	13%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80	6.5%		
	지적교육	우 리 말 셈 세 기 관 찰	120 80 80		10% 6.5% 6.5%
정서교육	노 래 와 춤 그 리 기 와 만 들 기	280 80	24% 7%	31%	
	체육교육	체 육	160		13%
기타	놀 이	240	20%	20%	
계		1,200	100%	100%	

출처: 최민수(2002)

다음 표 8의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낮은반의 만 4세 유아는 노래와 춤,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높은반의 만 5세 유아는 우리말, 셈세기 등 인민학교 준비교육이 강조되고 있다(표 9, 표 10 참고). 이러한 북한의 유아교육과정에서 취학 전 교육의

목표를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한 발달에 적합한 교육보다는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기초학습을 탄탄하게 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이룩하자는 정치이념과 일치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9> 유치원의 낮은반(만 4세)의 교육과정 편제와 비율

교과목명	시수	비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40	8.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40	8.5%
노래와 춤	160	33%
체육	80	17%
놀이	160	33%
계	480	100%

출처: 최민수(2002)

<표 10> 북한 유치원 유아 활동 시간표

교과목명	시수	비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40	5.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40	5.5%
우리말	120	17%
셈세기	80	11%
관찰	80	11%
노래와 춤	120	17%
그리기와 만들기	80	11%
체육	80	11%
놀이	80	11%
계	720	100%

출처: 최민수(2002)

유치원의 형태는 일유치원(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가는 형태), 주유치원(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데려가는 형태), 월유치원(1개월간 맡겨두는

형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북한의 유치원은 일유치원이 많지만 여성을 사회로 유입하기 위하여 어린 자녀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유치원과 월유치원도 추가되는 유치원 형태중 하나로 변화하였다. 다음은 표 11은 일유치원의 일과표이다.

<표 11> 일유치원의 일과표

순서	시간	활동내용
1	6 : 30 - 8 : 00	어린이 맞이
2	8 : 00 - 8 : 15	아침체조
3	8 : 15 - 8 : 35	교양사업
4	8 : 35 - 8 : 45	교실로 들어가기
5	8 : 45 - 9 : 00	방송듣기
6	9 : 00 - 9 : 30	휴식
7	9 : 30 - 10 : 00	수업
8	10 : 00 - 10 : 30	휴식 및 새참시간
9	10 : 30 - 11 : 00	수업
10	11 : 00 - 12 : 00	자유시간
11	12 : 00 - 13 : 00	점심시간
12	13 : 00 - 15 : 00	낮잠시간
13	15 : 00 - 15 : 10	낮잠 정리정돈
14	15 : 10 - 15 : 30	낮체조
15	15 : 30 - 16 : 00	교사자유시간
16	16 : 00 - 16 : 15	총화시간
17	16 : 15 - 16 : 30	새참시간
18	16 : 30	집에 돌아가기

출처: 최민수(2002)

북한의 유치원은 탁아소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유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두 일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낮잠을 자는 등 집단생활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사회국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혁명적인 인재양

성'에 기반 한 것이며,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성장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인재 양성과 더불어 정치 사상교양을 가장 강조하고, 기본학습인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유아교육을 통해 건설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북한이탈주민과 유아를 위한 교육적·정책적 지원제도

#### 1) 지원제도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과 유아를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경제적 문제, 문화적응과 사회적 관계,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문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순형 외, 2008).

##### (1) 경제적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일자리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을 시키는 하나원의 교육으로는 이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가운데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며 민주주의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형성한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에 비해 남한은 풍요롭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에게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모순점으로 인해 남한을 비인간적인 사회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직업교육 및 재 보수 교육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 (2) 내면화된 사회주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1차적으로 사상교육, 이념 등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미 습득하여 내면화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보수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우선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미 내면화 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습득과 언어 소통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데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난민으로 치부하여 자신들의 삶을 더욱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키지 못하며, 이방인으로서 변두리 삶을 살게 되어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고가 없는 이들에게 정보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회관계망 부재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3) 심리적 부담감

북한이탈주민과 그의 가족은 남한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은 의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발생의 전환, 행동양식의 전환을 촉구 받고 있으며(노희숙, 2012), 북한 체제의 사상에 대한 인지적 사고 변화에 대하여 압력을 받는다. 남한사회 정착부터 출발하여 반복 학습 통하여 과감히 새로운 사회에 나아가며, 다시 재 위치로 돌아와 기존의 도식과 새로운 정보의 통합과정을 거치며 남한사회에 융화기 위한 인지발달을 도모한다. 하지만, 남한사회에 대한 이상적 관념과 왜곡된 인지 형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 인해 이들은 정체성 혼란, 우울, 소외감 등 심리적인 병리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에서 바라보는 북한이탈주민은 집단사고와 직선적사고, 고루한 사고방식 등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2) 지원제도의 종류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목되는 현상 중 한 가지는 가족 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최혜신, 2010). 과거 정치적 목적에서 탈북을 결심하였다면, 시대가 변화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식량난, 생활권 보장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누려야 할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여 복합적인 감정들로 인해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인도주의와 인권, 사회의 선진화와 복지, 통일국가로써 미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접근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9년 7월 지역응용교육을 위한 지원 근거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 실시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통일부, 2011: 41). 그런데 실제로는 법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착금 성격의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 외의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등 성인중심의 재정적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11).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유아를 위한 학습지 교육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드림스타트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적 혜택은 이들의 발달 특성과 독특한 경험을 간과하여 획

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적 등 독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 남한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특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 4.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대부분 청소년과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주제로는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정책제도, 남한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행동들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자녀간의 양육태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질적연구의 심층면담과 북한과 남한의 교육, 정책 등에 대한 문헌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유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나타나는 자녀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과 적응에 대한 연구, 북한과 남한의 교육·보육 체제에 대한 문헌연구를 기초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김미정 외, 2007; 문은주, 2012; 박현정 외, 2011; 홍주은, 2003)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적 경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롭게 부여된 교육환경에 대한 양

가감정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여 접근하는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현정 외(2011)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적 경험으로는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가운데 남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체제 속에서의 신념을 버리고 점차 남한에 동화되는 현상을 겪었으며, 자녀양육에 있어 수동적인 역할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정 외(2007)에 의하면 북한과 남한의 다른 문화체제에서 양육의 목표가 변화 되었는데 북한에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양육이었다면 남한에서는 발달적 측면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으로 목표가 진이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자녀교육에 크게 상관을 하지 않았다면 남한에서는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 표출이 나타났다. 이들에게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남한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며, 이때 접촉이 가장 용이한 사회관계망은 유아교육기관으로 이들에게는 중요한 매개물이 될 수 있다. 홍주은(2003)은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방식이었다면 남한의 교육은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의 역할이 확대 되었다고 하였다. 언어의 이질감은 이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선행연구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태도라는 큰 주제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유아간에 나타나는 교육적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교육적 경험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인 현황정도의 정보만을 취할 수 있었다. 문은주(2012)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경험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양육 경험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는 크게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경제적 부담감을 꼽았

으며, 요구사항으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였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더불어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확충을 요구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과 적응에 대한 연구(강재희, 2008, 2010a, 2011; 김영미 외, 2003; 이부미, 2003, 2004)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재희(2010a)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문화를 수용하기 쉽고, 유아교육기관의 적응력이 높다 하였으며, 남한 유아들은 북한이탈주민 유아에 대해 북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두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리더십을 보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다른 유아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남한사회에 적응해 나갔다고 하였다. 또한,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유아들로 하여금 통일교육의 기회로 삼았으며, 가정과의 연계 교육이 병행되면 적응에 더 유용할 것이라 하였다(강재희, 2008). 김영미 외(2003) 연구에서도 유아들은 북한 유아와 남한 유아간의 차이를 인식하였으나 이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을 보아 차이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따라 선입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부미(2004)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한 유아들은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결과와 맥락이 같다. 또한 이부미(2003)는 북한이탈주민 유아는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익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한에 융화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하였다. 이때, 교사와 부모가 과거경험과 현재경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관계형성은 또래의 지지와 부모, 교사 등의 성인의 지지가 중요한 요소이며, 유아교육기관은 이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소라 하였다. 강재희(2011)는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이 체류하고 있는 공간에 교재교구 구비 등과 같이

환경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정신건강이 취약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강재희(2011)는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은 남한사회문화 적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빨리 동화되기 때문에 이미 도식화 되어 인지적 보수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독특한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돕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책마련 등을 통해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음을 밝혔다.

북한과 남한의 교육, 보육 체제에 대한 문헌연구(강재희, 2010b; 성영혜 외, 2001; 양옥승; 2012)에서 양옥승(2012)의 연구에서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제를 제1기(1945-1970), 제2기(1970-1994), 제3기(1994년 이후)로 구분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제1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교육기능이 강화 된 시기로써 사회주의에서 자녀는 국가에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탁아소 또는 유치원에 보내 사상교육을 받게 한다. 제2기는 유치원에서 주체사상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2년제 교양원 대학을 3년제 교원대학과 통합하였지만, 유치원 1년의 의무교육으로 인해 유치원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교원을 충당하기 위해 교원강습소 출신을 교양원으로 채용하면서 유치원 질의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제3기는 경제난의 위기상황에서 무상유아 교육이 유명무실해 졌고, 부모로 하여금 교재비, 시설 개보수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유아교육 실상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유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강재희(2010b)는 북한 유치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진 유아의 식량권과 건강권 그리고 보호권, 교육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식량권과 건강권과 관련하여 북한 유아들은 남한 유아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취약하였으며, 보호권과 관련하여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을 유아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권을 살펴보면, 경제난이

대두 된 이후, 교육과정의 일정을 소화 하지 못하고, 정치사상, 이상화 교육을 통한 사상 심어주기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이질적인 문화로 하여금 교육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유아기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겪은 교육적 경험에 중점을 두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은 어떠하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유아를 위한 교육접근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 연구방법의 관점과 예비연구 및 본 연구의 연구절차, 자료 분석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1. 연구 참여자

#####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표 12에 제시된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를 기초로 하여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준거로 Spradley(1979)의 좋은 제보자의 조건에 의거하여 연구 하고자 하는 지역 혹은 집단에 대한 문화를 잘 아는 사람, 이야기 하는 것을 즐겨하되 주관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 비 학술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며, 참여관찰 및 집단, 개인면담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북한과 남한에서 생활할 당시 자녀에게 1개월 이상 유아교육기관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2차적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 어머니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연구 결과와 연구대상자 선정의 준거를 기초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를 선별하였다(표 12 참고).

<표 12>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

연구 참여자 선정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 자녀에게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는 어머니</li> <li>● 남한에서 자녀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는 어머니</li> <li>● 연구목적에 부합하며, 참여관찰 및 집단 / 개인면담이 가능한 가정의 어머니</li> </ul>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유아기 자녀와의 신뢰감 (rapport)형성을 위해 2011년 2월부터 2012년 현재(9월)까지 꾸준히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담과 관찰이 이루어져 보다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 어머니<sup>2)</sup>

이름	자녀 연령	남한 거주 기간	어머니 학력	자녀교육기간	
				북한	남한
이철수어머니	만5세	1년	전문학교	유치원 6개월	유치원 6개월
박선일어머니	만5세	12년	전문학교	-	어린이집 24개월/유치원 18개월
전홍임어머니	만5세	1년	고졸	유치원 3개월	유치원 7개월
장진욱어머니	만5세	8년	전문학교	-	어린이집 18개월/유치원 12개월
박세희어머니	만5세	1년	전문학교	탁아소 12개월/유치원 3개월	어린이집 1개월/유치원 6개월
장수철어머니	만5세	1년	고졸	유치원 6개월	유치원 6개월
리송이어머니	만5세	1년	전문학교	탁아소 12개월/유치원 7개월	어린이집 3개월/유치원 5개월
나영환어머니	만5세	1년	고졸	유치원 4개월	어린이집 1개월/유치원 5개월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8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이철수어머니>

이철수어머니는 37세로 북한에서 전문학교를 졸업 한 후, 미용사로 근무하였으며,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하여 남한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였고, 2011년 가족단위의 탈북을 결심한다. 남편과 자녀 이철수(2011년 당시 만 4세)를 데리고 제3국에서 2개월을 보낸 후, 하나원에서 5개월 교육을 받고 남한에 정착하였다. 철수는 북한에서 유치원을 6개월 다니다가 탈북 한 유아로 남한에서 유치원을 6개월째 다니고 있다. 이철수어머니는 의지력과 생활력이 높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2)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모두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 <박선일어머니>

박선일어머니는 45세로 북한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99년 궁핍한 생활고와 꽃제비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은 북한에서 아이들을 교육 시킬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남편과 첫째 아들인 박상철(당시 만 6세)과 두만강을 건너 가족단위의 탈북을 시도하였다. 북한 생활 당시 첫째 아들인 박상철은 탁아소 36개월과 유치원 24개월의 교육을 받았으며, 남한 생활 당시 출산한 둘째 아들 박선일(현재 만 5세)은 어린이집 24개월과 현재, 유치원을 18개월째 다니고 있는 중이다. 북한에서 유아교육을 받은 상철이와 남한에서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선일을 보며, 북한과 남한의 유아교육에 대한 차이점과 모순점, 그리고 제3국 거주 당시 남한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남북한의 유아교육에 대한 극명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다. 박선일어머니는 차분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적 사고를 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 <전홍임어머니>

전홍임어머니는 36세로 북한에서 장사를 하며 전홍임(당시 만 4세)을 유치원에서 교육 받게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난의 위기로 장사마저 뜻대로 되지 않고, 낮은 출신 성분으로 인해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현재 남편은 제3국에 체류 중이며 현재 만 5세 홍임이와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제3국에서 들은 남한과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남한사회는 상이하며, 자녀의 교육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다 절망감과 더불어 남한사회에서 패배자로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이 많은 성격이지만,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북한에 있는 친정식구들 생각 때문인지 한편으로는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다.

### <장진욱어머니>

장진옥어머니는 46세로 남한에 정착기간이 8년이 넘었으며, 북한에서 전문대학 졸업 후, 사무직에 종사하였다.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북한 국적의 딸 1명과 남한으로 탈북한 후, 남한 국적의 아들 1명이 있으며, 현재 큰 딸은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들은 만 5세의 장진옥이다. 큰 딸이 북한에서 탁아소를 24개월, 유치원을 24개월 동안 다녔고, 이때 자신의 자녀 교육에 대해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현재 진옥이를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만, 자녀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한사람들의 교육방식으로 교육하고자 모방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자신의 교육방식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남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등의 수동적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냈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에서 교육받은 자신의 교육관과 북한에서 딸을 키워온 방식으로 인해 혹시 남한사회에서 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처부를 들어내 보이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박세희어머니>

박세희어머니는 39세로 북한에서 결혼 한 후 딸 박세희(현재 만 5세)를 키우며,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다 남편의 근무지에서 체불임금과 더불어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더 이상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족단위의 탈북을 시도하였으며, 중국을 거쳐 라오스에서 생활하다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박세희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방임주의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말 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장수철어머니>

장수철어머니는 38세로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식료품 장사를 하

며 근근히 생활을 하던 중 아들 장수철(당시 만 4세)이 유치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경험한 뒤, 조선동포에게 남한에 가면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단위의 탈북을 결심하였다. 중국 도문시(圖們市) 조선동포의 도움으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으로 곧바로 이주한 경우이다. 북한에서 생활 당시에도 자신이 장사를 하여 가족의 생계를 이끌었던 만큼 생활력이 강하며, 결단력 있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 <리송이어머니>

리송이어머니는 38세로 남한 거주기간이 1년이다. 북한에서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주부로서 생활을 하였고, 리송이(당시 만 4세)에게 유치원교육 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한다. 남한으로 이주하였을 당시, 남한의 어린이집은 북한의 탁아소, 남한의 유치원은 북한의 유치원 교육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리송이(당시 만 5세)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했으나 정원초과로 인해 입학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쾌활하고, 승부욕이 강한 성격이며,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히 높다.

#### <나영환어머니>

나영환어머니는 37세로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살았지만, 항상 자신과 남편의 출신 성분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장사를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자신의 자녀 나영환(현재 만 5세)을 남한에 데리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2011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라오스 대사관으로 단기 체류한 뒤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자녀의 성공 때문에 남한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으며, 공부하는 것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주관이 뚜렷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 2. 연구방법

질적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삶 속에서 현상과 사물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와 언어를 통해 연구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이용숙, 김영천, 1999). 특히, 질적연구에서도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연구대상 집단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과들에 대하여 관찰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의 가치, 지식, 기술을 정리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의 기록(조용환, 2011)이라 할 수 있다. 체제이탈이라는 독특한 삶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유아기 자녀를 둘러싼 환경에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경험 고찰과 실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 1) 참여관찰

질적연구의 연구결과가 제한적인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생활 장면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생활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관찰 관점(조용환, 2011)을 취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의 적응과 유아교육기관과의 관계에서 수 많은 상황들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가능하게 하며, 분석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다. Spradley의 참여관찰 선정기준 요소인 단순성, 접근용이성, 비노출성, 허락가능성, 활동의 빈도, 참여에 의거하여 참여관찰 장소를 선정(윤택림, 2004)하였으며, 참여관찰 유형에 의거하여 중간수준의 참여를 통한 참여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통해 얻게 되는 자료들의 수집은 서술관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집중관찰, 선별관찰의 진행과정으로 접근하였다.

## 2) 심층면담

참여관찰만으로는 이들의 독특한 삶을 이해하는데 한계점이 야기됨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써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인 심층면담(Marshall, 1987)을 병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신뢰감(rappot)형성과 상황의 유동성을 위하여 연구 초기단계에서는 비구조적 면담방법으로 접근하였고, 서서히 반구조화된 면담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의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연구의 타당화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201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본 연구에 연구 참여자

로 포함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인을 대상으로 각 3회 개인면담을 진행하였다. 예비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남한거주기간 3년의 이정명어머니와 남한거주기간 13년의 임진영어머니이다. 서울시 소재 지 A구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첫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1시간 동안 면담이 진행되었다. 1차 면담은 2011년 6월 2일부터 2011년 6월 7일까지 이름, 나이, 체류기간, 남한 입국 시기, 탈북 동기와 같이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 후 보완 사항 및 연구에 필요한 질문을 선정하여 2011년 6월 9일과 2011년 6월 10일에 다시 유아 교육관, 교육형태, 남한과 북한의 교육의 차이점, 양육태도 등과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면담은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예비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예비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sup>3)</sup>

이름	자녀연령	제3국 거주기간	남한 거주기간	비고
이정명어머니	만 6세	7개월	3년	2011년 당시 만 5세
임진영어머니	만 5세	28개월	13년	2011년 당시 만 4세

3) 본 연구에서 예비연구 참여자는 모두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예비연구결과, 이정명어머니와 임진영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써 남한의 거주기간은 다르지만, 예비연구 당시 만 5세, 만 4세 유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으며, 북한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적 경험은 북한의 탁아소보다는 유치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또한, 예비연구결과를 기초로 남한의 거주기간에 따라 교육관이 달라지고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북한에서의 교육적 경험과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예비연구결과를 통해 질문의 모호성과 적절한 면담 시간, 참여관찰자로서의 연구자 역할 등 예비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 선정 및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2년 4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주 동안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관찰을 통해 얻게 되는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2011년 3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서술관찰을 하였고, 2012년 1월 초부터 3월까지 집중관찰을 하였으며, 2012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선별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여관찰을 위하여 2012년 4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17주 동안 연구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한 회당 관찰시간은 30분에서 50분이었고, 주 1회, 총 17회 동안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그의 자녀가 교육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언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관찰 했으며, 관찰한 내용을 현장노트에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면담 방법은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

어졌으며, 집단면담은 예비연구자인 이정명어머니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2012년 5월 12일부터 2012년 8월 18일까지 15주 동안 각 3-4회 면담으로 구성하여 총 28회의 개인면담과 총 4회의 집단면담으로 진행하였다. 한 회당 면담시간은 45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모든 이야기를 수용하는 자세로 경청하였으며, 추가 질문이 있을 시에는 다음 면담에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북한 언어로 인하여 전사 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와 e-mail을 통해 다시 의미를 확인하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면담내용과 이들의 상황적 맥락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전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5> 자료 수집 및 방법

자료수집유형	사용된 방법	수집된 자료
참여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주 1회 방문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작성한 필드노트를 분석하여 사용함.</li> </ul>	필드노트
심층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주 1-2회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비구조적, 반구조적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뷰 녹음자료를 수집함.</li> <li>추가 질문이 있을 때에는 다음 면담 시 질문하고, 전화와 e-mail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함.</li> </ul>	녹음자료 · 전사본
유아의 활동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방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자녀간의 교육활동 노트와 학습지도 등을 통해 얻게 되는 포트폴리오와 학습지 등 다양한 활동지를 탐색하여 분석함.</li> </ul>	교육활동지

또한, 면담은 주로 비구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초기에는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답변의 내용

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문제와 연결된 질문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준거 및 내용과 면담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2와 같다.

<표 16> 면담 일시

사례	면담 총 횟수		면담일시	
	개인	집단	개인면담 일시	집단면담 일시
이철수어머니	4회		5월12일, 6월 2일, 7월8일, 7월29일	
박선일어머니	4회		5월12일, 6월 3일, 8월4일, 8월11일	
전홍임어머니	3회		5월20일, 6월23일, 7월28일	
장진옥어머니	3회	4회	5월26일, 6월16일, 7월22일	5월28일
박세희어머니	3회		5월27일, 6월30일, 8월 5일	6월10일 6월24일
장수철어머니	3회		5월13일, 7월15일, 7월22일	8월15일
리송이어머니	4회		5월 6일, 6월17일, 7월 7일, 7월21일	
나영환어머니	4회		5월19일, 7월 1일, 7월14일, 8월12일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여관찰의 필드노트와 심층면담의 전사본은 총 412쪽이었으나, 연구 주제와 연관되지 않는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필드노트와 심층면담 자료는 총 249쪽, 녹음시간은 총 1,440분의 연구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위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방법 중에서 참여관찰방법과 심층면담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한 방법론적 삼각검증법과 언어적 자료와 시각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자료의 삼각검증법을 사용하였다(Denzin, 1978).

전사한 자료를 반복 청취하고, Strauss(1987)의 코딩 유형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전사 한 후 모든 내용에 대해 일일이 해석을 붙이는 개방코딩(open coding) 작업부터 실시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여 핵심 범주에 대한 내용을 코딩(coding)하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한 후,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Spradley(1980)는 전사하여 기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순환적 관계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접근하였다. 주제별 코딩(coding) 과정을 통해 분류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유아기 자녀의 교육적 경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경험한 남한의 유아교육기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경험한 남한의 유아교육기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어려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요구사항’의 범주로 분리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e-mail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부자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여(Lincoln & Guba, 1985) 정확하고 신뢰로운 자료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

교육은 단순히 암기를 통해 어떤 사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 일원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매개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정착에서부터 출발하여 남한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이미 습득한 지식,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반복적 과정을 거쳐 인지를 재구성한다. 이때, 문화세계에서 생성된 문화가치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유아기 자녀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은 남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경험한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을 교육기회의 땅으로써 누구에게나 평등한 유아교육, 자유교육으로써 유아중심의 교육, 신뢰 가득한 부모와 교사 간에 교육 동반자 의식, 행복한 삶을 위한 유아의 꿈과 희망 꽃 피우기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 1) 교육기회의 땅, 남한사회: 누구에게나 평등한 유아교육

전 생애 발달 가운데 유아 시기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 바 있다(Belfield 외, 2006; Cunha 외, 2005; Heckman 외, 2010). 이 시기의 적절한 교육을 통해 유아의 긍정적 발달과 더불어 좋은 교육적 경험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

니들은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상층과 하층의 유아에게 차별적인 교육을 적용하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부정 거래를 통해 전면 무상교육의 의미를 퇴색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남한 사회에서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의 평등화를 지향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바라본 남한사회의 유아교육기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자녀가 모두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남조선은 국가에서 애 공부 다 시켜준다고.... 우리 북한에서는 토대가 있고, 돈 있는 사람만 개인과외(교양원<sup>4)</sup>에게 소정의 금액을 챙겨주면 일과 후 손퐁금 등을 유아에게 배워줌) 시키는데 (남한은 다) 공부 시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철수어머니, 개인면담-1, 2012. 5.12)<sup>5)</sup>

(북한 평양) 시내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삼층 건물이 있는 높은 큰 유치원들이 있어요. 여기는 (출신성분이 좋은) 상층이죠. 돈이 있는 집들은 한 달에 (유치원에) 얼마씩 내고 교양원에게 과외 받고... 그러면 (교양원이) 6시까지 배워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데리러 가고.. 나 같은 장사꾼은 꿈도 못 꾸죠. (남한은 유치원) 버스타고 딱 (집앞에) 데려다 주고 하니, 출신 성분이 필요가 없죠. 애들한테 (공부나, 교사의 태도가) 공평하니까... (나영환어머니, 개인면담-2, 2012. 7. 1)

4)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를 지칭하는 말

5) 본 연구에서 녹취록을 인용하는 방법이다. 괄호 안의 첫 번째 ‘이철수어머니’는 연구 참여자를 의미하고, 다음 ‘개인면담-1’은 개인면담 1회의 내용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인터뷰 날짜 2012년 5월 12일을 의미한다.

이철수어머니와 나영환어머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사회는 사회주의 체제로써 출신성분을 강조한다.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좋지 않으면 유치원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육 자본의 격차에서 오는 교육 기회의 차별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철수어머니와 나영환어머니는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는 공동체를 강조한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남한사회의 학원 개념보다는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개인과외가 소수의 특권핵심계층 고위관리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반면, 남한에서는 차별 없이 누구나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는 북한 사회가 사회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본주의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가정의 자녀는 기초적인 교육의 기회제공 또한 허락되지 않고,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의 사회적 붕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한에서는 판자, 시멘트 이런 거 안가지고 가도) 유치원에서 공부 시켜주고, 인민학교(초등학교)에 쌀 안가지고 가도 되고, 책 준다네요.  
(남한에서) 흥임(만 4세)이를 잘 키울 수 있죠.

(전흥임어머니, 개인면담-1, 2012. 5.20)

한국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돈이나 물품 등) 갖고 오라는게 없어요.  
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장진욱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2)

북한사회의 유아교육기관은 탁아소(출생 후 1개월-만 4세 이전)와 유치원

(만 4세-만 6세)이며,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치원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최민수, 2002). 하지만, 개인면담을 통해 북한 유아교육기관의 실상은 무상교육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홍임어머니, 장진욱어머니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유아교육기관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저귀, 판자, 시멘트, 휴지 등을 가지고 가야하며, 이를 충당하지 못할 시에는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받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반면, 이들이 바라본 남한 유아교육기관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의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장진욱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이들 가족의 탈북 동기가 한국에 오면 누구에게나 교육의 혜택이 제공되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진다는 막연한 기대와 개인의 능력 발현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탈북 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 수철(당시 만 4세)이가 유치원에서 울면서 왔어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애만 (출신성분이 좋지 않아 행사준비를 못하게) 뺐더라고요.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으면 선생님들에게 소외를 당하지만) 여기(남한)는 수철이를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빼지 않아요.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1, 2012. 5.13)

(북한에서는) 교양원들 수행과제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몰래 몰래 대신 해주는데, 그거 안 해주면 애들 차별해요. 돈 있으면 (수행과제를) 사면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교양원의 수행과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교양원들이 (애들을) 무시하고 큰 행사(국가 원수 생일)에 참여 못하게 해요. (중략) (남한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좋고, 행사(생일잔치, 소풍, 견학 등)에 다 참여시키던데요?

(나영환어머니, 개인면담-2, 2012. 7. 1)

북한에서 토대가 낮다는 것은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가 하층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차별을 받는 등의 대우를 받게 된다. 장수철어머니와 나영환어머니는 자신들의 낮은 출신 성분 때문에 자녀가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한 유치원은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성분으로 인해 자녀가 주눅 들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또한, 나영환어머니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교양원은 일정 기간 내에 수행과제라는 것을 해야 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교양원들의 수행과제는 판자, 시멘트 등을 구하여 국가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교양원들이 수행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층 가정의 자녀가 교양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교양원 중에서 교원대학의 교양원학과를 졸업하지 못한 교원 재강습소 출신들은 소위 뇌물을 주고 교양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성분이 좋지 않아 자신의 수행과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학부모들이 대신해 주어 자신들의 자녀들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교사의 수행과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현재 경제난이 심각하여 교양원들의 수행과제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 저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의미가 퇴색되어 졌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2) 자유교육의 땅, 남한사회: 유아중심의 교육**

남한의 유아교육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유아의 흥미와 개별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자유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의 교육을 처음 접할 당시에는 당혹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교육방식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여 현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장진욱어머니: (남한에서는) 애들이 부담스럽게 안 배우니까... 우리 딸 (현재 만15세) 은 저쪽(북한)에서 다 배우고 왔는데, 유치원가면 하루에 뭐 열 장 써오라(하면서 한글 배웠는데) 둘째(현재 만 5세)는 (남한에서) 그런게 없고, 애들이 막 부담스럽게 팔이 아프도록 계속 쓰고 이러지 않고, 여기 (남한) 애들은 보니까 그림이야. 알기 쉽게... 물건 모양에 맞춰서 요런 거다. 너무 자상하게 딱 해주니까 애들한테는 그게 더 좋지.

박선일어머니: (남한에서 글자를 배울 때) 쓰는 게 아니잖아. 나도 큰애(현재 만19세 북한에서) 키우고 여기 와서 둘째(현재 만 5세 남한에서) 유치원 보냈을 때 애가 뭘 좋아 하는지 계속 물어 보는거야... 무슨 이런 교육이 다 있나 싶더라니까...

장진욱어머니: 나도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 왜 저렇게 배워주지? 애한테 일일이 저게 좋아? 이게 좋아? 물어보기만하고... 저게 틀리고 내가 (북한에서) 배웠었으니까.... '아야어어'부터 착착 배워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중략) (첫째)애 (남한)교육(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더라. 한국에 와서 둘째 애(현재 만 5세)를 낳아가지고 길러보니까 이 방식이 더 낫구나...

박선일어머니: 내가 이렇게 사회주의 사회하고 자본주의 사회 다 살아

보니까 사회주의 사회는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회고 한국 사회는 자기가 창조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니까.. 한국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교육(욕구에 맞는 교육)하는게 맞는 교육이지...

(집단면담-3, 2012. 6.24)

세희(현재 만 5세)가 유치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유치원이 그렇게 좋아?” 물어봤어요. “재밌어.. 선생님이, (유치원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기분 좋죠. 애가 좋다는데...

(박세희어머니, 개인면담-1, 2012. 5.27)

집단면담과 개인면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유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남한의 교육지도방식이 북한의 전통적 교육지도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기가 되어서까지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에서의 교육은 누구나 같은 수준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 한 반면, 남한에서의 교육은 개인차를 존중한 유아 중심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유아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의 발달을 도모한다. 집단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이들의 첫째 자녀들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한글의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부터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면 남한은 유아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고, 학습의 효과도 크지만 남한에 정착 당시에는 교육방법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남한의 흥미 위주 교육방식이 장기적인 맥락에서 볼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박세희어머니 사례에서 유아들의 요구를 수용하

지 않는 교육방식은 유아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유아들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하는 남한 유치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 그때(유치원 다닐)는 그냥 가서 건너긋기 배우고 내려긋기 배우고 비껴긋기 공부 배와주고, 그 다음 날에는 이거 한 장 써오세요. 알림장에.. 숙제장에 하고, 집에 가서 또 건너긋기, 내려긋기 다섯 장, 다섯 장 쓰고, 그 다음에는 무슨 두 시간 그렇게 공부하고 어린 시절 김정일 장군님 이런 걸 또 공부해요. (중략) (교재교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유치원 안에 장군님 연구실(전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장군님은 몇 년도에 어디서 무슨 고향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 받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집에 오죠. 첫째는(현재 만15세) 가엽더라구요. 여기(남한의 유치원)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졌기 때문에)미술도 하고, 동화도 읽고, 레고 같은 조그만한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수업하는 것도 TV, 동화, 장난감 있고, 애들이 재미있어 하죠.

(장진욱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2)

리송이어머니: 남한에 계속 살던 애들은 좋지. 나가면 간판들인데.. 한글 공부 되지.. 우리 북에서는 간판이 있었나 뭐.. (남한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지...

박세희어머니: 그치. 우리 북조선에는 간판이 뭐야.. 자동차 구경하기도 힘든데..

이철수어머니: (남한) 유치원에서도 동화책으로 한글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

(집단면담-2, 2012. 6.10)

집단면담과 개인면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듯이 북한은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유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장진옥어머니의 면담에서와 같이 북한에서 유아들의 흥미를 배제한 교실구성은 교사중심의 주입식 암기 위주로 접근하여 유아의 흥미와 발달 상태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유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장진옥어머니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서도 유희활동은 있지만 장난감과 미술활동 시 필요한 재료, 동화 책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양원은 거의 없으며, 장군님 연구실 공간에 구비되어 있는 이론중심의 암기방법을 사용한 장군님의 역사서와 같은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유아의 흥미를 이끌고 이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는 집중시간이 더 길어지고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매체와 교구를 사용한 교육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면담 사례에서 자신들은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 노출이 남한 어머니들 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글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도모하지 못했음을 밝히면서 남한 유아교육기관의 흥미위주 교육방식이 더욱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공부시켜야 하는데) 공부 시키는 게 애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우리 애 공부 시키는 거 봤는데. 그렇게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천 같은 걸 만져 보고, 냄새 맡고.. 희안하게 집중을 잘 하는 거.. (중략) 애가 재미있어 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깐..... (박세희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30)

북한은 의무적이예요.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배워주는 교육자도 내가 너희들을 무조건 가르쳐줘야 한다. 알고 넘어갈 때까지... 북한 선생님들은 내가 이 애를 맡았으면 이 50명이라는 사람을 다 최우등으로.. (중략) 무조건 책임이예요. 의무감이예요. 최우등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 자기도 욱먹고 수준 떨어지고 하니깐... 애들이 무조건 힘들더라도 체계적으로 다 잘 배워가지고 안고 데리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데 없잖아요. 개인지도로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애가 뭘 좋아한다 이러면 그걸 하게 해줘요. 레고도 부서보고, 만져보고..(중략) 애가 좋아하는거니 흥미로워 하죠. 애가 재미있게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더라구요.

(박선일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 3)

박선일어머니, 박세희어머니는 유아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자기주도학습이 일어나 학습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남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식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남한의 교육방법은 유아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오감을 사용하여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박선일어머니 면담에서는 처음 접해보는 흥미위주의 교육방식이 단순히 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한의 대부분의 유치원과 가정에서 유아중심 교육의 흥미위주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이미 습득한 주입식 교육으로 자기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유아들 역시 암기식의 교육방법보다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3) 신뢰 가득한 땅, 남한사회: 부모와 교사 간 교육 동반자 의식

북한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학부모와 교양원간의 의사소통 단절로 인하여 유아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남한의 유치원 선생님은 유아 개인의 환경을 이해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이들의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믿음을 갖고 유아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교사와의 교육적 동반자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신뢰감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교양원(유치원 교사)이 (애들을) 욕하고 때려도 우리는 말도 못해요. (교양원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만 하지 다른 말은 안 해요. (남한 선생님은) 오늘 무슨 일 있었다고 (신발장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거 (잘못된 행동) 못하게 하라고... (오늘) 무슨 활동 했다고... (중략) 선생님하고 담화해요. 상담을... 좋죠. (북한 아이라) 차별할 줄 알았는데.. (이철수어머니, 개인면담-1, 2012. 5.12)

북에서 큰 애(박상철 현재 만19세) 가르칠 때 교양원 하고 이야기 해본 적 없고, (애에 대해서) 물어 본 적도 없어요. (남한에서는) 선생님이 따로 불러요. 우리 작은 애(박선일 현재 만 5세) 미술(활동)한거 보여주고, 애가 어떨다 말해주고... (중략) 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는 그저 선생님하고 상담해보고, 애가 어느 수준이구나... 선생님과 계속 전화통화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선생

님을 믿죠.

(박선일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 3)

이철수어머니, 박선일어머니는 남한의 유치원 선생님이 자신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남한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에서 비로써 신뢰감을 형성 하였다고 한다. 이철수어머니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유아교육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조직생활과 사회주의 체제의 사상교육을 교육하는 교양원들의 권력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아들이 교양원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며, 자녀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모두 부모의 출신성분이라 귀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반면, 남한의 유아교육은 이들과의 대화와 유아를 존중하는 행동에서 부터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 자녀를 교육할 당시, 교양원과 대화가 없었다는 박선일어머니 사례를 통하여 남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상담에 대해 호의적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남한 유치원) 선생님은 싹싹해요. 준비물도 일일이 가르쳐 주고... 우리 상철(현재 만19세)이 (북한에서) 유치원 다닐 때 교양원들이 땡땡 거렸지, 여기처럼 (하나하나 신경써주는 것) 이러지 않았어요. (중략) 아무래도 부드러운 억양이 마음에 더 들어 (신뢰가 생겨) 좋죠.

(박선일어머니, 개인면담-3, 2012. 8. 4)

남조선에서 온지 몇 달 안 되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략) 영환(만 5세)이 준비물 못 챙겨주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더라구요. 어떨 때는 준비물을 (핸드폰) 사진으로 보내줘요. 애가 활동(동물

카드, 식물카드를 북한에서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지 몰라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고, 문방구 가서 찾아보았는데, 마침 담임선생님께서 사진으로 보내주셨다고 한다.)한 것도....우리 같은 사람에게 고맙죠.  
(나영환어머니, 개인면담-4, 2012. 8.12)

박선일어머니와 나영환어머니의 면담을 통해 남한의 유치원 선생님들의 친절한 태도와 작은 배려는 자녀교육의 동반자로서 신뢰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 입학할 때 엄마들이 다 와서 설명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보내면 그걸로 끝이고 뭐 달라 뭐 달라 이거지.. 여기 (남한)는 돈을 낼 때도 (일일이) 다 설명해줘서 신뢰로운 것 같아요.  
(전홍임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23)

처음 여기(남한)에 왔을 때 스승의 날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이외에는 아무도 숭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중략) (남한 엄마들이 선생님에게) 뭘 사서 드려야 한다길래 몰라서 그냥 돈을 줬거든요. (유치원 담임선생님이 거절함.)  
(리송이어머니, 개인면담-4, 2012. 7.21)

전홍임어머니, 리송이어머니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리송이어머니의 경우, 북한에서는 달러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국가 원수의 중요한 생일이라 생각하여 돈을 주었지만, 선생님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스승의 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랐고, 선생님의 태도 역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선생님의 태도에서 남한의 유치원 기관과 담임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한다. 이는 선생님께 소위 말하는 뇌물을 주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과 교사의 신뢰 있는 행동을 통해 자녀의 교육적 동반자로서 교사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행복한 삶의 땅, 남한사회: 유아의 꿈과 희망 꽃 피우기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는 북한의 경제난과 함께 힘들고 고된 삶의 되물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안을 찾던 중 사회계급이 없는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게 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남한 교육이 북한의 교육현실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자녀교육에 대한 동경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유아기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땅이며, 이는 남한에 이주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전부 아빠가 갑부면 자식도 갑부고.. 토대를 보고... 기본은 토대예요. 나는 (북한에서) 토대가 낮아 (홍임이가) 장마당에서 장사꾼으로 살아야 해요. 근데 장사꾼이 어떻게 (자식을) 중앙당 간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아무래도 공부를 잘 해도 토대가 나쁘면 (홍임이가) 발전 할 수 없어요. 부모 직업이 그쪽이라면 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중략) 애들은 미래를 꿈 꿀 수조차 없죠. (중략) 남조선은 달라요. 누구나 유치원을 다니죠. 내가 가난해도 다니고, 돈이 없어도 다닌다고 (조선동포에게)들었어요.

(전홍임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23)

경제가 나빠졌어요. (남편의 근무지에서 체불임금이 계속되자 세희를 유치원에 그만 보내고 내가) 장사를 했죠. (중략) 북조선에선 할아버지가 농장을 하면, 자식도 농장을 해요. 그 자식도 농장을 해요. (출신성분이) 낮은 않았지만, 더 이상 세희(당시 만 4세)를 이렇게(아이들의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키울 수는 없었어요. (중략) 우리가 내려오면(탈북하여 남한으로 오면) 세희는 유치원에 다닐 수 있죠. (박세희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30)

전홍임어머니, 박세희어머니는 면담을 통해 북한은 출신성분의 사회 계층을 통해 사회적 지위의 되물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북한에서는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지 않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한은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 선택과 사회적 지위 상향을 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타났다. 전홍임어머니, 박세희어머니는 남한에 오면 출신 성분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녀가 꿈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박세희어머니는 가족의 출신성분은 낮지 않지만, 북한 사회의 체제 붕괴로 인하여 세희가 유치원을 그만 두면서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의 행복을 위해 탈북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 말이 있지만서리 우리 북조선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를) 물세는 집에서 감시받으며 살고 싶진 않아요.(중략) 여긴 공부만 잘 하면 잘 살죠. 남부럽지

않게..(중략) 내 자식도 유치원 다니면서 땀땀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

(이철수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 2)

하나원에서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면 저런데서 (창문 밖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가르키며)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략)유치원 공짜라고... 공짜데 배와야지... 나도 애 교육시켜서 잘 살아 보게...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1, 2012. 5.13)

이철수어머니, 장수철어머니 면담에서 남한은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이 남한사회에 융화가 되고 남 부럽지 않게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북한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수도권(평양) 아파트에 거주하며,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장애인인 경우 점차적으로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변두리(함경도 등) 판자촌으로 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남한 사회는 교육을 통해 이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에 수반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서인지 이철수어머니와 장수철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자녀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유아기 때부터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 보냄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고 배움을 통해 성공하여 남한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자녀만큼은 자신들과 같이 이방인으로써의 삶이 아닌 남한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었다.

##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어려움

교육은 한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반영한다. 북한이탈주민 그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교육관 등은 남한 사회의 교육과는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접근방식, 교육의 내용, 교육지도, 교육의 주체 등 많은 부분에서 대립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암기와 반복적 학습의 단기성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한에서의 유아교육접근 방식은 유아중심교육으로서 유아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는 사상교육을 강조하는 북한과 흥미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남한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 국가가 교육하는 미래의 인재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어려움은 북한과 남한의 상이한 교수방법에서 오는 어려움, 상이한 교육주체로 인한 책임전가에서 오는 어려움, 상이한 소통 방식에서 오는 어려움, 상이한 학습내용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 1) 상이한 교수방법: “여기는 북한처럼 공부를 안 가르쳐 줘요”

교육자는 자신이 받아들인 교육적 경험을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교육지도방법이 무엇인지 고찰 한 후, 이를 적용한다. 북한과 남한 사회의 교육적 경험은 상이하므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 할 때 교수방법 역시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인해 특별히 사교육 없이 국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모든 교육을 시켜주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의 빈부 격차가 커지고 이것은 오히려 자녀교육에 있어서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발음식이 “닭았다.”는 읽을 때는 “달랐다.” ㄹ(리을)은 있고, ㅁ(미을)이 옆으로 옮겨가서 이 글자가 읽을 때 이렇게 발음되고 쓸 때는 이렇게 써야 한다. 쓸 때하고 발음할 때하고 달라요. 그런데 여기(남한의 유치원)는 읽을 때 하고 쓸 때하고 똑같이 쓰고, 그건 아니지. (읽을 때와 쓸 때가) 틀린데 틀리게 가르쳐야지.

(이철수어머니, 개인면담-4, 2012. 7.29)

북한은 한글부터 가르쳐 줘요. 그런데 남한에 오니 통(단어)으로 가르쳐줘요. (중략) ‘곰돌이’ 면 ‘고’에 ‘ㅁ’ 있고, ‘도’에 ‘ㄹ’이 있고... 이렇게 ‘가나다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남한 유치원에서) 글자도 모르는 애한테 통으로 주는 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중략) (남한의 유치원) 선생님한테 우리랑 공부 방식이 틀리다 그러니 ‘가갸거겨’부터 가르쳐 달라했는데 “어머님, 그건 다 알아서 해요.” 어쩔 수 없죠. 우리랑 교육 방식이 틀리니...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평균적으로 (남한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엄청... 근데 북한 애들은 처음부터 여기 살지 않았으니까 기초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지. 통짜(단어)로 가르치는게 아니라 북한처럼 ‘그느드르(ㄱ, ㄴ, ㄷ, ㄹ, )’, ‘아야어여’부터 배워줘야지. 이빨도 안 났는데 콩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한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갑자기 통 글자로 ‘가’ 이렇게 내 놓으면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요?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2, 2012. 7.15)

남한사회의 유아교육은 암기위주의 반복학습을 지양하며, 남한의 유치원 교사는 유아들의 개인차를 존중해주고 개별화 학습을 통하여 유아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의 교육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불만

을 가지고 있었다. 이철수어머니와 장수철어머니의 경우 자신들의 유아가 한글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교사의 태도에서 이들이 남한 교육방식의 긍정적인 면을 퇴색되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교육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수철어머니의 면담 도중 ‘이빨도 안 났는데 콩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남한 교육지도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장수철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가갸거겨’부터 시작해서 ‘아이’, ‘고기’와 같이 받침이 없는 단어 그리고 ‘낙지’ 이런 식으로 받침이 들어간 단어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만약 무슨 “김일성 대원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모르면, 복습하는 거예요. 물음. 답. 물음. 답.... 애가 공부해서 찾아서 써야 해요. 그리고 그걸 외워야 해요.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잠 못 자게하고 암송(외우기) 해요. 아침 시간까지... (중략) 남조선은 암송 하는 법이 없어요. 애한테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물어보면 똥박질하고 놀았대요. (중략) (남한 아이들보다 공부가 처진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죠. (불안해서) 잠 안 재우고 받아쓰기 시켜요. 소학교가면 (한글은) 알아야 되니.. (북한에서) 한글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남한) 애들한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2)

이철수어머니는 학원을 다녀온 철수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철수는 가방만 놓고 엄마 곁으로 간다. 어머니는 철수에게 “(유치원에서) 받아쓰기 가지고 왔지?” 철수는 말없이 가방에서 노트한권을 꺼내 들고 노트에 적혀있는 단어를 10번씩 반복해서 쓴다. 철수가 노트에

있는 단어를 다 썼을 때 이철수 어머니는 다른 공책을 가지고 오며 철수에게 내민다. 그리곤 받아쓰기가 시작된다. 받아쓰기 후, 받침이 틀리면 이철수어머니는 큰 소리로 “이거 방금 썼잖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니?”라고 야단을 치며, 틀린 단어와 문장을 한번 쓰게 한 후, 반복해서 시험을 본다. 철수가 피곤한지 하품을 한다(이때 시각은 9시 50분이었다).

(이철수어머니, 참여관찰-2, 2012. 6. 2)

개인면담과 참여관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자녀를 채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며, 성공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라 여기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반복학습의 주입식 교육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뇌교육을 시키지 않는 남한의 교육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게 반복학습의 외우고 받아쓰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장수철어머니의 경우 자신이 북한에서 배운 교육방식으로 공부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도태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불안정한 자아로 인한 그릇된 교육방식은 그 자녀로 하여금 불안정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유아의 의사 존중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을 개인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관찰을 통해 유아발달생체리듬을 간과하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학업의 결과물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쪽쪽쪽 (동화책을) 읽다가, 진짜 잘 읽는데.. 나랑 받아쓰기만 하면 참 못해.. 그럼 “뻘한 거 왜 못하니!” 이러고 몽둥이 들고 한단 말이에요. 때리면서...(중략) “너 오늘 이거 못하면 벌 서야해.” 안하면 나는 한 시간씩 벌세워요. 말 안 들으면 파리채로 막 때려요. (파리채가 없

으면) 손에 집히는 걸로 때려요. 받아쓰기 하다가 애를 또 때릴까봐(유치원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키지 말래요.

(전홍임어머니, 개인면담-1, 2012. 5.20)

딸(현재 만15세, 북한에서) 키울 때는 앉혀놓고 공부시키고.. 딱 마루에 앉아서 이거 틀렸어. 바로 해! 글씨 예쁘게 써. 글씨 곱게 써. 뭐 어째라, 큰 소리로 읽어라 이려고, 딱 숙제 받아 내고 못하면 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종락) 아들(현재 만 5세)은 (유치원에서) 한글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가르치다가 요기 팔을 몇 대 때렸거든... 북한 엄마들이 속상하니까 때리기도 잘 하잖아요. 말하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가거든. 그런데 그 때리는걸 알아가지고 다음날 (유치원에서 아이 팔에 멍 자국이 있다며) 전화 왔어. 선생님이 때리지 말라고 교육 시키더라고... 그래서 되도록 주먹질 안하고 말로 하려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북한에서 보고 배운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교육(방식)이지....

(장진욱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2)

전홍임어머니, 장진욱어머니는 북한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드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자녀를 교육할 때 때리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를 들고 하는 교육방식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가 맞는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못해서 맞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부모가 자식 교육할 때 매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남한의 대부분 유아기 부모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지만, 전홍임어머니의 경우 부적절한 언어 표현방식과 폭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장진욱어머니의 경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형벌을 주어 단순 암기만을 시키는 교육방식으로 변모하였으며, 남한  
유치원 선생님들이 매를 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 해 하며 매를 들지 않으  
면 교육을 할 수 없음을 계속 해서 강조 하고 있었다.

## 2) 상이한 교육주체: “북조선에서 애 교육은 교양원이 다 해줬지”

북한사회에는 교육의 주체가 교사중심이었다면 남한사회는 유아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북한은 주입식 교육으로 접근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습성을 익히고, 반복학습을 통해 무의식 중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등 유아가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남한은 유아의 흥미와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가 다양한 활동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여 자신의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렇듯, 북한과 남한사회에서 교육의 주체가 다른 남한의 유치원 교사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간의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접근 관점에 대한 괴리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남한사회에서의 교육접근 방법은 자신들이 기존에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들이 이미 습득한 유아교육방법이 과연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자녀의 학업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믿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기존에 습득한 획일화된 교사중심의 북한 유아교육 방식을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서 큰 애(박상철 현재 만19세) 키울 때는 유치원에 맡기면 거기서 다 알아가지고 뭐 애들 배워주고 숙제 같은 거 내주면 집에 가서

간단하게 (가르쳐주면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일체 다 부모가 애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더 열성이 있어야 하더라구요.(중략)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맛벌이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가르쳐 줄) 시간이 없잖아...

(박선일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 3)

북한은 (유아교육이) 의무 교육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남한은 그게 아니고 자유 나라니깐.... 각기 그저 제가 알아서 챙겨줘야 하거든요. 엄마가 앉혀 놓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럼 누가 벌어서 먹여 살리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집에 오면 밤이고...

(박세희어머니, 개인면담-1, 2012. 5.27)

박선일어머니, 박세희어머니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면 교양원이 일정한 분량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교육하며, 또래보다 낮은 수준이 되면 나머지 공부를 시켜 유아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으로 유지 시킨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바라본 남한의 유아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강화가 되었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대부분 육체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토로 하며 모든 유아교육을 기관에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북한사회에서 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유치원 교육문화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박선일어머니와 박세희어머니는 남한사회의 유아교육은 유아를 중심에 두고 유아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자로서 개인차를 인정해 주고, 개별화 교육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

다고 믿고 있으나 이들은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주길 원하였다.

리송이 어머니는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동화를 읽어준다. 동화를 다 읽고 난 후 리송이 어머니는 동화책을 덮은 후, 송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송이는 동무와 잘 지내니?”라고 말 한 후 갑자기 “아니다 아니다 친구!”라고 말한다. 송이는 “동무?” 라고 말하자 “아니라니까...밥 먹자” 라고 하며 자리를 피한다. (중략) 필드노트를 정리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나를 보며 “(방금 읽어준 동화책을 내밀며) 다시 남조선 언어로 읽어주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 (중략) “우리애가 혹시 (내 말투와 억양 때문에 유치원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요?”(나에게 묻는다.)

(리송이 어머니, 참여관찰-2, 2012. 7.21)

(남한에서는) 내가 공부를 시킬 수 밖에 없죠. (유치원에서) 배워오는게 없으니..(중략)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는 고조 ㄱ‘기억’을 ‘기억’이라 합니다. ㄱ‘쌍기억’을 ‘된기억’이라 하구요. 발음식이(중략) 북한말이. 어린이집 보낼 때는 몰랐는데 유치원으로 옮기니 (남한 유아들이) 많이 이사를 갔네요. (중략) 북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엄마들 자체가 북한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 이렇게 딱 경계를 세우니, (나는) 북한말을 쓰는데. 내 말투 때문에 애한테 안 좋을까봐 (담임선생님에게) 다 말겨버리죠. (박세희 어머니, 개인면담-3, 2012. 8. 5)

참여관찰과 개인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사용하는 북한식 말투와 억양, 단어의 차이 등이 그들의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과 양육방식이 아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참여관찰에서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북한 단어가 유아에게 전이되는 과정을 경험 한 뒤 부모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박세희어머니는 유아중심교육에 대한 적용기간이 짧고,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유치원 교사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의 왕따에 대하여 혹시 남들과 다른 말투와 억양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이들로 하여금 더욱 유치원 교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된 결정적 사건임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유아기는 엄마와의 긴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북한사람이라는 정체가 밝혀지면 남한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자녀까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었다. 언어의 이질성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로 하여금 남한 어머니들과 융화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게 하였다. 결국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교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교사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성인이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와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문화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미 습득된 주입식 방식과 흥미 위주의 교육 방식의 혼란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유치원 선생님, 개인지도 교사 등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또한, 남한사회에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녀교육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애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중략) (남한) 여기에 오니 매일 노니깐 답답했어요. (중략) (남한 유치원에서 안 가르쳐 주니) 지금은 영어랑 미술, 집중력에 바둑이 좋다고 해서 바둑 하죠.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2)

우리 송이(현재 만 5세)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한글을 못 때고 왔잖아... 유치원도 몇 달 못 다니고.. 한 7개월 다녔나? 애가 저 쪽(북한 유치원)에서도 교육 못 받고, 이쪽(남한 유치원)에서는 공부를 안 시켜,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중략) 남한에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니.. 지금은 000교육이랑 영어, 수영... 주산 좀 시켜요.

(리송이어머니, 개인면담-4, 2012. 7.21)

남한사회는 조기교육보다는 적기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접근방법을 지향하기 때문에 조기교육의 효과를 그리 높게 평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과 남한의 유아교육 주체가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수철어머니, 리송이어머니는 남한에서 어머니의 역할 부재 시, 조기교육을 통해 모든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인해 유아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장수철어머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구도는 불가피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녀를 최고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와 남한의 경쟁사회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내 자녀를 공부 시키면 경쟁에서 승리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는 생

각을 하고 있었다. 즉, 자신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교육과 사교육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송이어머니는 북한에서 조기교육을 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교육의 효과성을 강조하였으며, 조기교육은 자녀의 성공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 3) 상이한 소통문화: “남한 말은 도통 모르겠어”

북한과 남한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언어의 분화로 인해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고층 중 언어의 이질성은 어머니와 교사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의 방해물로 작용하였고, 북한 특유의 억양은 자녀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문화적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묵시적 의사소통방법으로 인하여 상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준비물 준비 하는 거 어려워요. 그거(준비물) 챙기려면 사전에 인터넷 쳐보고... (중략) (남한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줄넘기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줄넘기가 뭔지 몰라 준비 못해줬어요. 말이 다르니까... 그런 게 좀 힘들고.. (줄넘기는 북한 언어로 뽀뽀이라 한다.)

(박세희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30)

(남한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송이(만 5세)가 그 뭐시냐.... 기름 사탕을 먹었다고 혼났다고 하더라구요. (중략) 캐러멜이 뭔지 몰랐죠. (북한에 있을 때 송이) 유치원 갈 때 한 개씩 챙겨줬거든요. (남한에서 캐러멜을 유치원)선생님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때 못 알아들어서 우리 딸이 혼났죠.

(리송이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 7)

북한과 남한의 의사소통 대부분은 한글이며, 제3국의 언어보다는 쉽게 가능하여 언어 사용 시 용이하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박세희어머니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남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서 오는 고충을 통해 한글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해서 어려웠다고 하였다. 또한, 리송이어머니는 북한은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고, 제2외국어는 영어 보다는 중국어 위주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외래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에서 오는 고충을 호소하였다.

전홍임어머니: (남한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애를 혼냈나봐. 울고 오더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혼이 났데...

이철수어머니: 그냥? (남한 유치원) 선생님들 싹싹한데....

전홍임어머니: 나는 북한에서 온지 얼마 안 되서 차별하나 했지...

이철수어머니: 차별 같은 거 못 느꼈는데...

전홍임어머니: 근데 또 혼나서 들어오는 거야... 안되겠다 싶어서 돈뭉치 달라는지 알고, 갖다 줬지... 선생님이 당황해 하더라니깐....

박선일어머니: 여기는 그런 돈 안 받아... 원비만 내면 끝인데..

전홍임어머니: 우리 북조선에서는 애 혼내면 돈 (또는 선생님의 수행과제를 대신하는 것)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 (중략) 우리애가 옆 반애랑 싸우고 안 싸웠다고 거짓말을 했나봐. 뺨피해서 혼났네...

(집단면담-3, 2012. 6. 24)

북한에 있을 때 교양원한테 송이(당시 만 4세) 잘 봐달라고 돈 찢러 준 적 있어요. 우리 북에서는 돈도 주고 그래요. (교양원)과제 수행도 (대신)하고.. 내 새끼 잘 봐달라고... (중략) 남한에 와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한테 ‘엄마는 안 오시네?’ 그래서 송이(당시 만 5세) 잘 부탁하다고 돈 가지고 갔는데...(돈을 안 받으심.)

(리송이어머니, 개인면담-4, 2012. 7.21)

의사소통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대화로 하는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몸짓 역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비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 사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집단면담에서 남한 유치원 교사의 단편적인 행동과 언어만 가지고 이들이 접한 북한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빗대어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집단면담과 개인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아이가 혼이 나가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교양원의 수행과제를 대신 해주거나 혹은 교양원에게 일정 금액을 따로 지불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리송이어머니는 북한에서 교양원의 과제 수행을 대신해 주고, 달러를 지급하여 자신의 자녀가 다른 유아와는 다른 처우를 받게 하였다고 한다. 리송이어머니는 남한으로 이주하여 유치원비만 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유치원 선생님의 “엄마는 안 오시네?”에 내포된 의미는 엄마와 면담을 하고 싶은데 유치원에 오시지 않아서였지만, 리송이어머니는 이를 오인하여 뇌물을 달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역시 이러한 행동을 하자 원장님의 제재가 있었고, 담임선생님 역시 어머니 행동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 하며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집단면담과 개인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북한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남한에 적용

할 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인지발달상태를 물어보니) 발달이 “다른 유아 보다 늦다.” 속상했죠. 북에서 공부 꽤나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발달 상태는 인지뿐만 아니라 신체, 언어, 사회성 등 전인적인 발달을 의미하지만 홍임이 엄마는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 애가 모자란다고 생각했죠. (전홍임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8)

내가 유치원에 가니깐 선생님이 “북한 애들은 이상하게 공부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중략) 애 때문에 (남한에) 왔는데.. (공부에서) 떨어지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2, 2012. 7.15)

전홍임어머니, 장수철어머니 면담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한에서는 한 가지의 발달 상태를 보고 유아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경우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한에서는 유아들의 개인차를 인정해주고 발달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적인 발달과정을 지지해 주는 반면, 북한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에서 시작하고 같은 수준으로 평준화하기 때문에 전홍임어머니에게 남한 유치원 선생님이 말한 “다른 유아 보다 늦다.”라는 말은 “우리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떨어지는 저능아구나...”라고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북한은 평양에 장애인이 살지 않는다. 그 정도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 처우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이 더욱 충격

적으로 받아 들여졌을 것이다. 장수철어머니의 면담에서 선생님이 말한 “북한 애들은 이상하게 공부가 떨어진다.” 는 북한 아이들 대부분은 제3국도 떠돌면서 남한 유아보다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잘 모른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지 이 아이가 발달적인 측면에서 나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수철어머니는 북한 아이들은 북한사람이기 때문에 발달이 늦다는 선입견을 남한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 북한아이들을 편애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전홍임어머니, 장수철어머니와 남한 유치원 교사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4) 상이한 학습내용: “여기서 살려면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요”**

유아에 대한 교육관은 개인이 속한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역사나 사상 교육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기초학습(3R’s: 읽기, 쓰기, 셈하기)인 반면, 남한은 대부분의 경우 유아 능동적 학습을 강조하는 활동 중심의 체험활동, 창의적활동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역시 집단생활을 강조하여 공동체에서의 질서 예절 교육이 주로 일어나는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사회현상에 빚대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남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 유아교육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육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북한에서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선생님이 과제를 주면 (집에서) 과제를 시켜주고 가서 검열 마치고, 점수 받아 갖고 오고, 이러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남한)는 애들이 막 말을 시작할 때부터 자상하

게 놀이부터 시작하고.. 애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니까. 현장 체험  
이라든가 자기 애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던데.

(박선일어머니, 개인면담-3, 2012. 8. 4)

북한은 배울 게 유치원 가서 장군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린 시절  
교육이라고 그 김정일에 대한 어린 시절 교육.. (사상교육을) 어릴 때  
부터.. (중략) 그냥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무슨, 김정일 장군님 고  
맙습니다. 그래서 또 애들도 손들게 해가지고 장군님 몇 년도에 태어  
났어요? 하면 또 손들고 맞추는 애는 빨간 별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낮잠자고, 낮잠도 자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자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통제하니까 무서워서 눈 감고 있다가 낮잠 자고 세 시, 네  
시 그때 집에 오고, 살얼음판이라고 해야 하나? 애들한테는... (남한에  
서) 유치원 가는 걸 좋아해요. 저번에 가니까 무슨 미술도 하고 햄버거  
도 만들고.. 애들이 같이 먹고, 치우고, (아이가 밝아져서) 좋더라구요.

(전홍임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8)

박선일어머니, 전홍임어머니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교육과정은  
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던 아이의 흥미를 배제시킨 교육과정  
으로 이루어진 반면, 남한의 교육과정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다양한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사상교육은 성  
인이 되어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주 당시 남한 교육방식에 대  
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이러한 교육방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  
한 경험을 통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유아기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체  
험 중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리송이어머니: 조금 걱정 되는 게 제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남한에서  
는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박세희어머니: (북한에서는) 전혀 안 시켜요. 사상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성교육은 안 시켜요. 그게 좀 달라가지고 앞으로 걱정되는... (중략) 너무 애들이 가뜩이나 빠른 쪽으로 깨  
잖아요. 지금 이성 그런 걸로 많이 깨가고 있는데...

장수철어머니: “엄마, 날 어디서 낳어?” 자꾸 물어 보더라구요. 유치원  
에 갔다 오더니 “엄마, 내가 엄마 어디서 낳았는지 안  
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배웠다는 거  
예요. 그거 누가 배워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사람  
내장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붙어 놓고) 해놓고  
엄마 몸, 아빠 이런 식으로..(중략) 싫죠. 징그럽죠. 애  
가 벌써 이렇게 아는게...

장진욱어머니: 애들이 그걸 모르면 더 신기해하는... 모르면 더 호기심  
갖고...(성교육 좋다.)

리송이어머니: 나는 좋게 안 봐요.

박세희어머니: 나도 좋지 않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동  
심 세계가 천진하잖아요. 애들이라는게... 그런데 이 심  
리 상태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박선일어머니: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되면 나쁜 걸 알아.. 남한 사람  
들 말하는게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아놓고 미리미리 알면  
호기심 없어 한 대요. 알면 성폭행 이렇게 없다는 거  
지.. (중략) (남자) 아이가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좀 덜  
하게끔 하고 있으라고...

리송이어머니: 그래도 나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앞으로 걱정이 더 많아요.

(집단면담-4, 2012. 8.15)

성교육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남사스럽잖아요. 남사스러운데 벌써 저걸 배우면 막.. 왜 저걸 배우주지? “철수(만 5세) 유치원에서 성교육 배워줬대요.” 내가 이렇게 신랑한테 말하니깐 (신랑도) 어이 없어 가지고....

(이철수어머니, 개인면담-4, 2012. 7.29)

성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한국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릴 때 성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보다 성적인 면에 있어서 부적응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한에서는 유치원부터 성교육을 시킨다. 하지만 집단면담과 개인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대부분은 성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남한에서의 생활을 5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견해는 다르게 나타났다. 집단면담에서 박선일어머니와 장진옥어머니는 북한에서 첫째 아이의 교육 경험과 남한에서 둘째 아이 교육 경험을 통해 오히려 성에 빨리 노출되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감소시키고, 문제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철수어머니는 성은 숨기고 싶은 성인들만의 비밀이며, 성이라는 것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또한 TV에서 포옹, 키스 등 성적인 행동이 나오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자녀에게 큰 소리로 방에 들어가라고 혼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받아보지 못한 교육경험을 받아들이기에는 사회문화와 배경이 달라서 아직까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남한) 애들이 교육은 더 받는데 왜 (학교폭력이) 그게 더 심한가... 막 폭행하고.. 애들이 자살하는 것도. (중략) 나는 사상교육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북한)는 아이 때부터 체계적으로 너무 사상교육을 시키니까. 사상교육, 따라 배우기, 공산주의 도덕, 무슨 어린 시절 이야기 하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 같은데 (남한 유치원) 오니까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중략) 북한 공산주의 도덕에서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어른들을 존경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2)

북한 사람들 보면 예절이 있잖아요. 부모가 한 마디 딱 말하면 듣고.. 근데 여기는 더 그런 게 없더라구요. 애들은 더 버릇없고.. (남한 유치원에서는) 예의를 안 가르치나 봐요.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조용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에는 순종하고.... 예의를 가르치는 과목이 여기는 없나 봐요.

(리송이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 7)

장수철어머니와 리송이어머니는 유아들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 예의범절과 같은 기본적인 능력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라도 학습 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장수철어머니는 남한 사회의 폭력이 심각해지면서 북한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남한에서 문제행동의 강도나 빈도가 강해지는 원인으로 도덕교육이 강조되지 않은 교육내용이라 밝혔으며, 도덕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지는 북한과는 달리 자유로운 환경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교육방식으로 접근하는 남한 교육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리송이어머니는 북한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생활과 남한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생활이 다름을 지적하고 남한 유아들이 공공장소나 유치원,

심지어는 집에서 떠돌고 뛰는 원인으로써 예절 교육의 결여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요구사항**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 사람들과는 다른 이방인이라 생각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는 남한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라 치부하여 그들 스스로의 삶을 고립시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회관계망 구축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교육을 강조 하였으며, 이때 유아교육기관은 사회와 연결 시켜주는 매개물로 작용하게 된다. 공부를 통한 자녀의 성공은 남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적극적이며, 요구하는 바도 다양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북한이탈주민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 **1) 북한이탈주민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들은 유아들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길 바랐다. 남한 유아들에 비해 교육적 환경의 매체와 교구 등에 노출되어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만을 위한 교육을 원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 되어지는 주먹구구식의 교육이 아닌 자신들이 교육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더불어 고 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학습을 받길 원했다.

전홍임어머니: 처음에 와서 나는 이야기 했어. 선생님한테... 유치원에서 뭘 하나요? 왜 한글 안 가르치나요? 몇 번 말했어요.

장수철어머니: 차라리 (유치원에서 한글을 안 가르쳐 주면 ) 학원이라도 좀 있잖아요. 절반 값에.. 좀 싸게 해가지고 (복지카드) 학원 보낼 수 있게...

이철수어머니: (더하기, 덜하기도 안 가르쳐 주는 유치원 말고) 나도 학원 다닐 수 있게 좀 싸게... 조금이라도 싸게....

(집단면담-3, 2012. 6.24)

지금은 우리 애가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장난감만 만진다고 해서.. (중략) 그렇다고 소학교에서는 가르치나? 남한은 소학교에서 대충대충 배워준대요. 학교에서는 대강대강, 학원가서 배워라.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죠. 국가에서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해) 해 주는게 없으니.. (중략) 우리는 (경제적으로 남한 어머니들보다) 안 되기 때문에 (학원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카드. (바우처 제도 같은)카드 같은 거이.. 좀 할인 혜택이라던가... (리송이어머니, 개인면담-4, 2012. 7.21)

집단면담과 개인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생각한 교육이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 주길 원했다. 특히, 학원의 수강료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카드나 쿠폰 등이 복지카드로 매달 지급되어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학업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리송이어머니는 이미 남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사교육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까지 지원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으며, 교육에 대해 다양한 기회를 받길 원하고 있었다.

북한은 영어를 위주로 안 하니깐... 여기는 꼬맹이들도 영어로 하는 거야... 하긴.. 여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접하니깐... (중략) 우리 같은 사람만 따로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쳐줬으면 해...

(전홍임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8)

(드림)스타트...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데, 선생님이 대충대충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깐 (중략) 외국 선생님 불러서 우리 애도 (유아교육)기관에서 (공짜로 영어) 공부하게.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2)

북한과 남한의 상이한 교육과정은 이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야기 시켰다. 전홍임어머니, 장수철어머니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중국어를 위주로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영어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남한 아이들에게 뒤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남한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외국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유아교육기관에서 해주길 원하였다.

##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정착에 대해서는 하나원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하나원에서만 이루어지며 보수 교육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만무하다. 이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하여 곤혹을 치루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더 고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재교육을 받길 원하였다.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고..(중략) (남한 엄마들은) 잘하더라... 손에 뭍(손 인형) 끼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재밌게 공부 하고.... 그림 같은 거 펼쳐 놓고...우리는 남한 엄마들처럼 (재미있게) 못하고... 그냥 이렇게 유치원 보내면 그걸로 끝이고.. (중략) 홍임이 담임선생님이 하는 걸 봤어요. (유치원) 선생님 같은 전문가한테 (유아의 흥미를 도모하는 교육방법) 배워보고 싶은데.. (전홍임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8)

중국동포가 있는데 (중국동포 끼리) 책도 빌려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동화 읽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한다는데.. 애가 다니는 유치원은 그런 게 없어.. (중략) 우리끼리 다니면 (남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게 싫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자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면 아는 척 하지 않고) 피하죠. 정보가 없어요. (리송이어머니, 개인면담-2, 2012. 6.17)

전홍임어머니는 남한 어머니들에 비해 유아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흥미 위주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와 같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녀가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는 감정을 보였

다. 그리고 리송이어머니는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길 원하였고, 자신의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길 원하였다.

우리(북한이탈주민 어머니)만 (유치원 선생님과 따로)상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남한) 엄마들이 많으면, 말을 못하거든요. 따로 선생님이 우리(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불러서 애 교육할때는 이렇게 해라, 애가 이상한 행동은 왜 하는거다.. 그런거 있잖아... 남한 엄마들이 아는거.. 그런걸 알고 싶다는 거지.

(나영환어머니, 개인면담-4, 2012. 8.12)

(남한) 유치원 선생님들은 우리 처지 잘 알잖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남한에서는)특 터 놓고 이야기 할 사람이 없잖아.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하소연도 못하고....

(이철수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 8)

나영환어머니, 이철수어머니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여있으면 남한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그 자리를 피하며, 자신이 북한에서 이주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나영환어머니는 남한 어머니들과 부모교육을 했을 때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싫었다고 말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추었다. 이철수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낙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래도 자신의 처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

남한 엄마들은 공짜로 월 (교육을) 잘 받던데...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ABC(알파벳)를 애들 가르쳐 주고 싶어도 까막눈이라 월 가르쳐? 부모가 까막눈이면 아새끼도 까막눈이 된다는 말이에요. 애가 ABC 물어보면 난 (밖으로) 나가요. (중략) (유치원) 선생님 만나면 우리애 ABC 가르쳐 달라고 말하죠. (나는) 배우고 싶어도 모르니깐 못하지.. (이철수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 8)

어떨 때는 애가 영어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애가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북한에서는 영어보다는 중국어 가르쳐 줘요. 고향기식으로, 영어 엄마는 잘 모른다. 그러면 “엄마는 왜 모르나?” 물어보면 “왜 엄마가 북한사람이라? 그때는 거기서 살아서 엄마는 못 배웠다. 엄마를 업신여기고 그리지 마라. 너는 여기서 엄마처럼 멍청하게 남 눈치보고 살지 말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유치원)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죠.

(장수철어머니, 개인면담-3, 2012. 7.22)

이철수어머니, 장수철어머니는 영어와 같이 북한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유치원 교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며, 혹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나를 무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며 어머니가 무지하면 그의 자녀도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가 교육시켜주길 원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사회에서 유아교육 경험이 있고, 유아기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경험한 남한사회의 유아교육기관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기회의 땅이자 유아의 욕구와 흥미 위주의 자유교육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 교사간의 상호보완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기 자녀교육에 교육적 동반자 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주는 신뢰 가득한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사회는 교육 기회의 땅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되물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남한은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 교육을 통해 출발선상에서의 평등화를 실현하고자 한다(조혜영, 황인주, 201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하며, 공평한 지원과 형평성 있는 교육지도를 통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남한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유아들은 성인에 비해 편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성인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 유아는 편견과 차별이 없다는 강재희(2008), 이부미(2004) 그리고 김영미 외(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남한사회는 자유교육의 땅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유아기는 탐색을 통해 배움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의 유아를 학습함에 있어서 성인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이들의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의 흥미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의 물리적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유아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강재희(2010b)의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재미있고 즐거운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한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집중력이 향상되고 능률이 오르는 등의 교육적 효과가 증가함에 따라 놀이중심의 교육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유아기에는 흥미위주의 교육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김경화, 2002)는 연구의 맥락과 함께 하는 결과이다. 또한 김주원(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유아처럼 두 개 이상의 문화 공동체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교육할 때 그림책, 시, 동화 등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셋째, 남한사회에서의 부모와 교사간의 유아교육에 대한 동반자 의식 함양은 이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고혜진, 2009; 임우영, 안선희, 2011; Owen, Ware & Barfoot, 2000)를 나타낼 수 있고, 신뢰로운 관계형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에서 교양원의 권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믿고, 유아들의 모든 교육을 맡기는 반면, 남한 유치원 선생님들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그들의 자녀를 교육함으로써 흥미, 욕구, 발달,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상호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남한 유치원 교사를 자녀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남한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긍정적인 자녀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어머니들은 궁금증에 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김은실(20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유치원 담임 교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 태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사회는 그들의 자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 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층의 자녀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없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노력과 공부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더욱더 공부를 강조하고 이때 유아교육기관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곳으로써 이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이들의 자녀가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유아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부지런함, 그리고 현명함 같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한 김미정 외(2007)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어려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어려움은 북한과 남한의 상이한 교수방법에서 오는 어려움과 상이한 교육주체로 인한 책임전가에서 오는 어려움, 상이한 소통방식에서 오는 어려움, 상이한 학습내용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북한처럼 처음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암기하여 교육을 시키지 않는 남한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남한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녀가 남한의 교육에 빨리 적응하고 높은 성취를 보여주기 기대하는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적절한 교육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홍주은(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 유아는 남한 유아에 비해 교육 혜택을 받고 성장하지 못했으며, 교육적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해 가정적 지원이 부족(강재희, 2008)하기 때문에 3R's(읽기, 쓰기, 셈하기) 수준이 남한 유아에 비해 낮다. 이는 이향규(2007)의 북한은 남한에 비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06)은 아동폭력은 유해하다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 사이에서 체벌을 통한 자녀교육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북한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양원의 체벌(강재희, 2010b)을 가볍게 치부하여 무의식

중에 잘못된 교육지도 방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방식을 쉽게 고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박현정 외(2011)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양가감정으로 인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북한이탈주민 유아로 하여금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으며 이는 비단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닌 이들에게 바람직한 자녀교육, 부모교육을 하지 못한 사회의 문제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유아를 포함한 다문화 유아가정의 자녀를 지도할 때는 이들의 발달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한 후 개별 학습에 맞는 적절한 지도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김명숙, 2012)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바라보는 이들에 대한 편견적 시각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폐쇄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며 점점 고립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남한은 유아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교사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주체가 교사 중심에서 유아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이들의 역할이 변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전통중심의 교육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동중심의 능동적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다(김경화, 2002). 하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차이와 사상, 체제에 의해 교육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는 상이하다(성영혜 외, 2001). 북한의 교육주체는 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 중심의 강의 위주의 학습이 일어나며, 유아는 수동적인 자세로 교사의 가르침에 배움을 습득 하지만, 남한의 유아교육은 유아중심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성인은 단지 조력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에서는 교양원이 모든 교육을 맡아 주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교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한만길, 1997) 즉,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교사중심의 교육에 익숙해 졌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한 선생님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 하였다. 교육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안게 해주었다. 또한 남한의 개인주의의 경쟁사회와 북한의 사회주의 공동사회의 교육이념을 통해 교육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적절한 개입과 융통성을 통해 교육이 지속된다. 반면, 북한의 경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 주기 위한 교육방법을 알지 못하여 남한 유치원 선생님에게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다. 유아기는 많은 경험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지식을 형성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성인은 유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신들은 북한에서 이주한 특별한 존재라 여기고 있었다. 즉, 자신들 스스로가 특별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가 속한 집단에서 최고가 되지 못하면 이는 곧 남한사회에서 고립되며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된다는 왜곡적인 신념으로 인해 성인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채 조기교육과 과대한 양의 교육, 왜곡된 교육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남한에 정착 한 후 남한 사회의 조기교육에 대해 무력감을 경험(장혜경, 김영란, 2000)한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들의 무력감의 경험을 통해 더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행동은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또래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함을 강조한 김미정 외(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오히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여 교육에 있어서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사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강재희, 2008; 김은실, 2012)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바람직한 교수방법을 찾길 원하지만 고립된 생활로

인해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정보부족으로 인해 학습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보완하길 원한다는 연구(봉진영, 2011)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남한과 북한의 다른 소통방식 때문에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며(홍주은, 2003)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그들을 편견으로 바라보거나 개인차를 무시하고 집단화하여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Cannella, 2002), 이들이 남한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이해를 도모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시 가장 중요한 매개물 중에 하나이다. 글로벌 사회의 도래로 인해 인터넷의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한 어머니들에 비해 인터넷상에서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소외되고 우리는 그들과 융화 될 수 없다는 자기 비하적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윤정로(2012)의 연구에서 모국에서의 미디어 경험이 남한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해 준다. 반면, 김지연(2010)의 다문화 가정 미디어 사용의 관한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사용률이 높았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폐쇄적인 문화생활로 인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용의 경험 횟수가 적고, 이를 가르쳐 주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북한은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운다. 하지만 중국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이 아닌 남한에 정착하길 희망하며, 남한은 북한과 한 민족인 동시에 한글의 언어가 통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지만 언어의 분화로 인해 세부적인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또한 그들 스스로 북한 언어의 억양과 말투는 남한사회에 융화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석향(2003)과 전우택(2000)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주 후, 적응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다른 어문정책결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강재희, 2008; 김갑성, 2006; 김미정 외, 2007; 문은주, 2012; 허미화, 2009; 홍주은, 2003)와 일치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남한과 북한의 다른 학습내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였다. 북한은 유아기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질서 의식, 순종 등을 가르치며 사회체제에 순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다. 하지만 남한의 유아교육과정은 세계화에 발맞춘 선진화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범국가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성교육을 통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보다 성 윤리를 확고하게 하여 올바른 성이 무엇인지 인식함에 목적을 두어 올바른 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성 교육을 유아기의 성교육은 바람직하며(곽노의, 유구종, 2002; 박선미, 2004; 정인희, 2000),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성교육은 필요하다. 이렇듯, 남한사회에서의 성교육은 자연스럽게 불가피한 교육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괴리감으로 인해 성교육에 대해 어색해하며, 싫어하는 내색을 보였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성교육보다는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예의범절, 도덕심 고취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폭행, 왕따, 흉악범죄 등 북한에서 접하지 못한 유아대

상의 범죄들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학습과 더불어 예절 등의 도덕심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김미정 외(2007)에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예의범절과 같은 도덕교육과 학습 교육을 강조한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홍주은(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절교육보다는 학습을 강조한다는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만4-5세)과 홍주은(2003)의 연구 대상(8-18세)이 다르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한 요구사항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가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바람직한 성장을 원하며 이때 교육이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자녀의 발달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봉진영, 201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교육적 경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남한에서의 유아교육기관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중요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접촉이 가장 용이한 사회관계망(김미정 외, 2007)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양영자, 201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에서 성공의 요소를 교육이라 주장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보다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길 원하였다. 이는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공부와 부지런한 태도를 강조한 연구(김미정 외, 2007)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는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써 학습을 강조한 연구(홍주은, 2003)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이렇듯, 조희수(2003)의 부모와 유치원 교사 모두 유아의 읽기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교육환경과 문화생활에 취약한 북한 이탈주민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 생애 발달 중에서 특히 유아 시기의 부모는 유아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동시에 유아와 지역사회간의 완충지대로써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김태련, 장휘숙, 1991)이며, 가족은 유아발달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기관이다. 탈북 유아가 겪게 되는 불안과 공포는 부모애착을 통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전이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자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과 자녀들의 발달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 여기고, 남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매개물이라 생각(김미정 외, 2007)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이질성으로 인한 어려움(강재희, 2008; 김갑성, 2006; 김미정 외, 2007; 김석향, 2003; 봉진영, 2011; 전우택, 2000; 허미화, 2009; 홍주은, 2003)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정보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과 기술 능력 함양, 실생활 훈련

등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연결망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유아교육기관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은 부모교육을 포함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김미정 외, 2007; 박현정 외, 2011; 홍주은, 2003)와 맥락을 함께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가 함께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서숙인, 2012, 정예리, 2010; Leber, 1967; 양영자, 2011에서 재인용)이므로 이를 유념하여 교육적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해 올바른 교육접근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부모 가운데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아버지를 포함한 연구로 대상을 확대하여 접근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접근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시 이를 근거로 반영하면 보다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강유경(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재희(2008). 새터민 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교육과학연구*, 39(1), 45-66.
- 강재희(2010a). 새터민 유아 3명의 유치원 적응과정과 놀이의 특징: 입국 초기 하나원 시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강재희(2010b).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아동과 권리*, 14(4), 487-57.
- 강재희(2011).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남한 입국 전 탈북과정 경험. *한국유아교육학회*, 31(4), 59-80.
- 강해성(2011).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강섭(2011). 북한이탈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북한이탈 대학생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혜진(2009). 부모-교사 협력행동과 부모-교사 신뢰관계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노의, 유구종(2002). 유아교육에서의 성교육 요구조사, *열린유아교육연구*, 7(1), 99-123.
- 곽정래(2010).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가치 수용, 삶의 질 평가, 시민성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화(2002). 아동중심 교육론과 전통적 교육론의 통합적 이해.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 김명숙(2012).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등교사들의 인식 수준과 유형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수(2004). 탈북에서 입국까지: 탈북자 입국지원 관련 법률개정 자료집. 김문수의원실.
- 김미정, 정계숙(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71-94.
- 김석향(200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김성구(2008).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숙(2012).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유아교육학회, 32(2), 241-264.
- 김애진(2011).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신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미, 이재연, 정선아(2003). 탈북 유아의 남한 유치원 생활과 적응과정 관한 사례연구. 아동권리연구, 7(1), 71-98.
- 김예영(2012). 북한이탈 어머니의 영유아 자녀 양육 경험.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실(2012). 다문화가정 부모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원(2012). 다문화가정의 유아 언어발달을 위한 동화표현활동. 백석대학교

- 기독교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연(2010). 다문화 사회의 결혼이민자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련, 장휘숙(1991).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형찬(1988). 북한 교육발달사. 서울: 한백사.
- 김희태, 권영덕(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 14(4), 95-117.
- 노희숙(2012).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을 통한 의미관점 전환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주(201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어려움과 요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경, 엄정애 (2007)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학회 28(2), 115-136.
- 박병규(2009). 새터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미(2004). 유아 성교육 현황 및 유아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열(2007).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천웅(2010). 다문화 교육의 탄생. 국경없는마을 출판사.
- 박현정, 김윤수, 박호란(2011). 근거이론을 이용한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변화과정. 아동간호학회지, 17(1), 48-57.
- 배지철(2010).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인식 유형. 경남대학교

-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봉진영(201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숙인(2012). 읽기게임 부모교육을 병행한 직접교수(DI)한글 읽기프로그램의 효과: 아동의 읽기능력, 읽기태도, 부모 양육 효능감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종남(2010).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성영혜, 김수정(2001). 북한 보육제도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2, 18-133.
- 손영희(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요구분석에 따른 멘토링 개선 방안.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영자(2011). 가정연계 다문화 교육 활동이 유아와 어머니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옥승(2012).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역사적 관점. 유아교육연구, 32(3), 293-37.
- 오애영(2011). 다문화가정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영호(2008).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06). 어린이가 사는 삶의 현장 어디에나 폭력이 있다. Unicef News, 68, 4-5.
- 윤갑정, 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6(2), 147-168.
-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정로(2012). 다문화 이주 외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이부미(2003). 탈북가정 유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현장연구: 탈북적응교육 훈련원(하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회, 3(2), 115-145.
- 이부미(2004). 어린이집에서 친구 사귀기를 통해 본 탈북유아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아동권리 연구, 8(3), 353-387.
-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2008).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양호(2009). 새터민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숙, 김영천(1999).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종규(2007).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향규(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1-17.
- 임상수, 정순미, 서승희(2008). 새터민 아동을 위한 교육 멘토링. 서울: 교육과학사.
- 임우영, 안선희(2011). 유아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4), 323-350.
- 임태오(201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1995).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혜경, 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3, 1-252
- 정병철(2008).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예리(2010). 다문화 가정 유아의 차별 경험을 통한 인간이해 가치교육적 함의. 윤리교육연구 21, 249-267.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2006).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 삶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인희(2000). 유아 성교육에 관한 교사의 의식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준오, 고성호(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6.
- 정진웅(2005).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편,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사)남북문화통합교육.
- 조용환(2011).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희수(2003). 유아기 읽기, 쓰기 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영, 황인주(2012).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들이 겪게 되는 긍정적 경험, 어려움과 개선방안. 유아교육학회, 32(5), 181-25.
- 진상우(2010). 북한이탈 학생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II 대안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민수(2002). 북한 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 최혜신(2010). 새터민 아동의 미술치료 단일 사례 연구-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일부(2011). 2010 통일백서. 통일부.
- 통일부(2012). 2012 통일백서. 통일부.
- 통일연수원(1995). 북한 이해. 서울: 통일원 통일연수원.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허미화(2009). 국제결혼한 몽골어머니들의 정체성과 육아의 의미. 한국영유아 보육학, 59, 273-33.
- 홍주은(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정숙(2009).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부적응과 적응 방안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법제처(<http://www.moleg.go.kr>).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일 2011년 5월 2일.
-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 북한인구추계-연령별추계인구. 검색일 2012년 12월 11일.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1년 5월 2일.
-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북한이탈주민현황(2012년 6월). 검색일 2012년 9월 1일.
- Belfield, C. R., Nores, M., Barnett, W. S., & Schweinhart, L.,(2006).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cost-benefit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age-40 followup. *Journal of Human Resources* 41(1), 162-190.
- Cannella, G. S.(2002). 유아 교육 이론 해체하기: 비판적 접근. [Deconstru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혜령 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1997에 출판)

-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2006). *The Economic Promise of Investing in High-Quality Preschool: Using early education to improve economic growth and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States and Nations*. Washington DC: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 Committee on Earth Pedagogy(2000). *Eager to learn : Educating our preschoolers(Free Executive Summary)*. Washington, D. C.:National Academy press.
- Cunha, F., Heckman, J. J., Lochner, L., & Masterov, D. V.(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NBER Working paper No. 11331. Co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enzin, N.(1978). *The Research Act: an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2nd Ed.)*. New York: McGraw-Hill.
- Hauser-Cram, P., Durand, T. M, & Warfield, M. E,(2007). *Early feelings about school and later academic outcome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living in poverty*.
- Heckman, J. J., Moon, S. H., Pinto, R., Savelyev, R. A., & Yavitz, A.,(2010). The rate of return to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210), 114-128
- James, P. K.(1997). *Research design in occupational educ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ery Park, CA: Sage.
- Marshall, C.(1987). *Report to the Vanderbilt Policy education Committee*.

Nashville, TN : Vanderbilt University.

Mason, J.(2010).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전은 1999에 출판).

OECD(2006). Start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rance Paris: OECD

Owen, M, Ware, A, & Barfoot, B.(2000). Caregiver-mother partnership behavior and the quality of caregiver-child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413-428.

Strauss, A.(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radley, J.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Van Tuijl, C., & Leseman, P. P. M.(2007). Increases in the verbal and fluid cognitive abilities of disadvantaged preschool in the Netherlan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2), 188-23.

# **ABSTRACT**

## **A Study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Jo, Hye-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have different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which they had already gained from North Korea's social system in South Korea. It is also focused on the problems and requirements that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children experienced in their early childhood. Through this study, significant efforts and changes are needed in order to lead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right direction of education and promot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s holistic development by providing various and desirable educational activity chances ultimately.

This study sets up study questions as follows;

1. What do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experienc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in South Korea?
2. What difficulties do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experience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3. What requirements do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ant ab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based on study participant selection criteria, (Spradley, 1979) and using snowball sampling of nonprobability sampling. Also this study selected 8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for study participants. To analyze this study purpose in depth, both a participant observation and an in-depth interview of a qualitative case study were used. Starting with unstructured interviews, in-depth interview gradually became semi-structured interviews, using both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Also, this study used participant observation for interaction occurred from education conditions comparatively in long-term.

During this study period, which lasted from May 12 to August 18, 2012, interviews were held once or twice per week for fifteen weeks. Each had three or four interviews, total of 28 individual interviews and total of 4 group interviews. Also,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action of education situation by education experience behavior and language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order to do the participant observation for 17 times for 17 weeks from April 5 to July 26, 2012.

Interviews and observations are conducted by visiting participants' house and data was collected by using recording system and field notes. This study used e-mail and telephones when it needed to check up the interviews and observations. Field notes of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ranscripts of in-depth interviews have 249pages, and the recording time is total 1,440 minutes. This study draws more meaningful outcomes using triangulation method like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that adds more visual data for reliability of data analysis.

The result summarized focusing on the study purpose as follows;

First, what the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have experienced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in South Korea.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had positive experience that there are no discriminations against North Korean children. In addition, their children can promote holistic development because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The kindergartens in North Korea offer less opportunity for variety of educational methods compared to those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thought positively that the kindergartens in South Korea offer many educational medium to children so they can explore and actively learn. In North Korea, teachers-parents relationship is hierarchical relationship, so they have communication gap. Thus this vicious cycle bring negative effec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parents-teachers good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make reliable relationship like a partnership, so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and the teachers have positive relationships. Lastly, North Korea's society puts emphasis on their family's social class. Therefore North Korea children from low-class family cannot have dream hopelessly. However, it is possible that every child can lear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in South Korea so, the North Korea refugee mothers are expecting their children's success.

Secondly, North Korean refugee mother face difficult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Due to different educational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refugee mothers view some of South Korea's education methods inefficient, so they used inappropriate education methods such as physical punishments and repeated practice. In additio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are more burdened to take responsibility and rol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when living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y did in North Korea, because South Korea lays emphasis on child-centered education while North Korea is approaching teacher-centered education. Thus,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face

difficulties by pressure that they should offer better education method to their children. Also, South Korea puts more emphasis in explorational activities while North Korea puts more importance on memorizational education. Thus,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ho want to find out desirable education methods said about their difficulties that from lack of information and isolation. Lastly,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usually do not want others to know that they are from North Korea. However, due to North Korean's special dialect, they have hard time concealing their origin and correcting their way of speaking.

Thirdly, what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requir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are as follows;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need more various education opportunities and benefits to their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consistently. The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ant self-development programs such as language education, diverse information,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technical training for successful adaptation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 부 록

## <부록 1> 연구동의서

### 귀하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과 유아가 남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도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저장되어 수집되고, 그 내용과 신상정보들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가 끝나기 전이나 후에 이 연구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전화 또는 E-mail 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권정윤

연구자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혜영

전화 : 010-3682-8148

E-mail : johyey@hanmail.net

위에 설명한 연구에 귀하의 참여를 허가합니다.

서명 : \_\_\_\_\_ 날짜 : \_\_\_\_\_

## <부록 2> 면담 준거 및 내용

심층면접대상	심층면접 준거	심층면접 내용
한국생활적응의 어려움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li> </ul>
	생활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학습을 위한 방법은 어떠합니까?</li> <li>▪ 자녀 학업을 위하 얼마나 지출하십니까?</li> </ul>
	자본주의 사회의 법적·제도적 마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사회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남한사회에서 자녀 교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li> <li>▪ 국가 차원의 자녀 교육을 만족하십니까?</li> </ul>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사회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떠합니까?</li> </ul>
자녀에 대한 교육관	현재 자녀에 대한 능동적·수동적 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어머니께서 자녀 교육 시 어떠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십니까?</li> <li>▪ 자녀 학습지도 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십니까?</li> </ul>
	바람직한 교육관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교육은 무엇입니까?</li> <li>▪ 교육기관과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하십니까?</li> </ul>
	남·북한의 교육관 차이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의 교육과정은 어떠합니까?</li> <li>▪ 남·북한의 교육방법은 어떠합니까?</li> </ul>
	자녀교육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학습지도는 언제 하십니까?</li> <li>▪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li> </ul>
남,북에서의 유아교육기관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li> <li>▪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li> <li>▪ 남한 유아교육기관과 북한의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li> </ul>